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법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진실로 보호한다.
(자타카)

법회 안내

보문정사 (02)437-3905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성룡사 (02)336-2052
일본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월 1 · 3주 일 오전10시

지비정사 (062)234-0879
참회기도법회 1일(음) 오전10시
거사림법회 첫째주 일 오전9시

대광사 (062)222-4613
초삼일법회 매월3일(음) 오전10시
중 · 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구한마음선원(053)426-2779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대구 보리원 (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마지막주 일 오전11시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충주 삼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낙산사 포교당(0396)671-4167
일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보살의 손 '盧씨 한파' 녹인다"

브라이언 탱화연하장 · 미영순 자서전등 수익금 소외층에

"이 수익금은 무의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성남시 '부처님마을 자광원'에 공양합니다."

전통기법의 수려한 연등관세음보살 탱화가 그려진 연하장 뒷면에 쓰여진 글귀다. 이 연하장의 탱화를 직접 그리고 노인돕기를 펴는 사람은 벽안의 미국인 불자 브라이언 베리(51 · (주)대우 근무)씨.

그는 인간문화재 만봉스님에게 10년동안 사사 받은 탱화솜씨를 발휘해 올 연말 연시에 자광원에사는 불우노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첫 인쇄는 그의 회사에서 좋은일 한다며 무료로 제작해 주었고 그 나머지는 전호영씨(이벤트 박스 대표)의 보시로 만들었다. 이처럼 좋은 뜻들이 모여서 마침내 지난 11월 23일 일차 3백70만원을 자광원에 전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한파로 사회가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올 연말은 유난히 마음이 춥고 쓸렴하다는 소리가 많다. 연말이나마 돼서야 찾게되는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도 사회혼란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교계의 동체대비 정신의 실천은 더욱 귀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장애인돕기 연하장 보급을 벌였던 불자 마영순씨(한국현대중국연구소 연구원 · 봉은사 청년회 지도법사)는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자전적 에세이 단행본을 출판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자활기금에 쓸 예정이다.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미씨는 오는 12월 초 출간될 〈눈물고인 가슴에 눈물 대신 품은 뜻〉(고려원 펴냄)이란 저서에서 삶의 의지와 생명의 외경심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지난해, 연하장 판매 수익금으로는 원력만큼 성과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대화와 공감대형성을 이루고자 책을 냈다"고 말하는 미씨는 "비록 장애가 있어도 남을 위해 살수 있다는 보람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책은 연말연시에 좋은 선물이된다.

또 선화가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은 직접 창작한 반야심경 전각 작품으로 96년 새해달력을 제작 불우노인을 도울 계획이다.

연말연시 일일이 불우이웃을 돌아보기 쉽지않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감동적인 선물이 될만한 연하장, 책, 달력을 구입하는 것은 이웃에게 정겨운 마음전달도 되며, 불우한 이웃을 돕는 보시 실천으로도 이어질수 있다. 그래서 연말 사회적 한파에 시달리면서도 '선물도하고 이웃도 돕는 일'에는 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란 기자〉



불자미술인 고속철 경주통과반대

민족환경운동 불교예술인연합회(환불련 · 회장 강행원)는 지난 11월 29일 고속철도 경주통과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환불련은 경주통과안이 철회될 때까지 회원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고속철도 경주통과반대 지상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영만 作〉



'작은나눔 큰 기쁨' 한마음법등 저금통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공업중생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후원으로 '한마음 법등 저금통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한마음 법등 모금운동'으로 모아진 기금은 새해 설날 불교사회복지시설 · 단체에 전달됩니다.

온정의 대불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방법

1) '한마음 법등' 모금통을 각 가정과 이웃불자에게 나눠줍니다.

2) 후원금 동참도 가능합니다. 각 은행 88번 창구에서 지로번호 7621929 (복)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을 보내면 됩니다.

문의/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3)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2-723-5105) · 한마음선원(0343-72-3100)

한마음법등모금운동본부
〈조계종 복지재단 · 현대불교신문사〉

'종토세 면제' 원로스님도 나서

공원관리공단 축출 · 산문폐쇄도 불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은 "법정신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찰 토지 관련 세금제도(종토세 토초세 등)를 전면 거부한다"고 천명하고 "사찰 토지에 임의로 자연 공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전면 거부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찰의 토지에서 물러갈 것"을 촉구했다.

혜암 승찬 원담 일타스님 등 원로회의 의원 13명은 지난달 28일 조계종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원로회의를 갖고 '삼보정재와 사찰 토지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사찰 토지에 무원칙한 세금이 부과돼 절땅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등 민족 역사와 함께 해온 불교종단 존립까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산문폐쇄도 강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정영 승산 탄성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을 유보했으며 원로회의 사무실은 새로 짓는 조계사 만불전안에 추후 설치키로 했다.

'종토세' 백만서명 돌입

조계종 총무원은 종토세가 면제될 때까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북한 수재민돕기 범종교 합동기도회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윤구한국선명회장)는 오는 8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 북한수재구호활동을 인터넷상으로 벌여온 버나드 크리셔기자(전 뉴스위크동경지국장)를 초청 현황 설명회와 함께 북한 동포를 위한 공동기도회를 갖는다.

본사후원 이근후 박사 경주 석불 사진전 · 13면

목어

바람을 재우는 지혜

오래전에 사람들이 모여 우스개 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대구에 아주 바람기가 심한 남자가 있었다. 고민하던 부인은 어느날 보약을 달여 들고 남편의 뒤를 미행했다. 그리고는 외간 여자와 딴짓을 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바람을 피우시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 이 약을 드세요."

결국 부인은 남편의 바람을 재웠다고 한다.

바람이란 말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바람기, 바람잡이, 비자금바람등 어떤류의 바람이던 바람이 일면 사람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 말리듯 정신을 못차리고 바람속으로 말려들기 일쑤다.

요즘도 그렇다. 노씨 비자금파문, 15년만에 되살아난 12 · 12, 5 · 18등이 바람이되어 우리사회 곳곳을 휘몰아치고 있다.

이 바람은 과연 언제쯤 잘 것인가.

광복 50년이 이제 한달도 채 안남았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내일의 도약을 위해 올린 축하 광파레와 퍼레이드가 무색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할텐데…. 우리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바람속에서 허우적이고 있는 느낌이다. 다른 일을 잊은 듯 매일매일 '그일'에 묶이게 되면 또다른 걱정이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북쪽의 기류도 잘 점검하고 경제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신문지상에서는 연일 '법과 양심' '원칙과 명분' '합리적'이라는 말이 바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보다 이해(利害)를 떠나 묵묵히 실천하는 나라 사람이다.

말이 지나치게 난무하면 바람잘날은 자꾸만 멀어질지도 모른다. 슬기와 지혜를 모아 새해가 오기전에 바람을 재우자.



사설

훈훈한 겨울을 만들자

가랑잎이 다 떨어져 뒹굴어 간 겨울, 차가운 연말 분위기는 실종되어 가는 온정에 기대감마저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행정, 국민의 입이라는 정치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자처하는가. 아직도 돈과 권력이 인간의 밝고 따뜻한 본심을 짓밟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니 어찌 돈과 권력에 미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리요.

지하철 요금이 언제 오르고 쌀값이 왜 오르는지 쓰레기 봉투 값은 어떻게 된 것이며 배추값 돼지값에 우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론도 한마디 거론하지 않는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귀도 눈도 비자금과 5·18로 숨이 막히고 가리워져 생활고는 날로 심각해 가고 있다. 일반 시민이야 무시무시한 골 안 보고 물가 안정되고 교통 편리하면 그만이다.

올해같이 살벌한 연말도 없었으며 앞으로는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다. 온통 몰염치한 정치인만 판치고 권력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소득 만불시대의 선진국 문턱에 선 5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의 자손이라면, 불우한 이웃과 노약자를 보살필 줄 알고 서민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걱정해야 할, 가진 자들이 아닐까.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의 눈이며 귀다. 보고 들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생활에 광온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생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살벌한 투기장 같은 정치소식이 장막을 치고 변화무쌍한 정치언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싸늘한 겨울에 다가오는 연말을 맞으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로원·보육원·재활원 등에 살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 그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리석어 죄 짓고 과보 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고 성불도 미루었다. 또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자비로 보살피기에 바쁘다.

찾아먹고 거머쥐는 일은 내가 해야 하고 내것이라는 탐욕과 애착을 부리며, 남을 돕고 남에게 감사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우리 민족은 본래 깨끗함을 좋아하는 백의민족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사는 예의를 갖춘 자손이다.

한해를 돌아보고 하늘과 땅, 물과 바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웃에 감사하자.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잘못이 없도록 고쳐 살자.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하고 대승보살의 6도만행을 생활화하자.

우리의 생명은 하늘과 땅과 바람과 물로 더불어 살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이 하나라면 이웃과 나의 생명도 하나이다.

'나'라는 아상과 '내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면 우리 모두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같이하는 삶의 도반이 되어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곳에…

열린마당

자원봉사지원법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지원법'이 법제화를 앞두고 폐기 위기에 처했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올해를 넘기면 14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안자체가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여져 공청회가 열리는 등 대책마련과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회자원봉사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민간봉사단체 활성화 법적토대 꼭 필요"

이 초 남 〈한국자원봉사단체협 사업부장〉

자원봉사지원법은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사회에는 기초자원봉사자, 중간활동 지원자, 전문자원봉사자등 계층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자원봉사자 계층이 두텁지 못하다.

자원봉사지원법이 제정되면 자원봉사자의 교육, 모집, 배치, 정보전산망 구축등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교류를 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주먹구구식의 단순 자원봉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원봉사연합회는 앞으로 대규모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지원법에 의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효과 뿐만이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여야 이해관계 떠나 복지선진화 대책을"

최 현 숙 〈상지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정부는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자원봉사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왔다. 현재 국가주도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복지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충분히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처사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마땅히 제정돼야 한다. 더이상 자원봉사지원법안을 미루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복지를 역행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취지를 살려, 정부와 국회는 자원봉사지원법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를 한층 성숙시켜야 한다.

"공동체정신 실현하려는 의지 꺾어서야"

이 영 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모니터회장〉

자원봉사는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및 상호협조정신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선의의 봉사정신을 계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지원법이 법제정의 취지 그대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자원봉사지원법은 현재 불교계 조계종자원봉사센타와 같은 자원봉사단체간의 원활한 지원과 교류를 앞당기는 시조가 돼야 할 것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경우도 뜻있는 몇몇 보살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순수한 불교자원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는 언제나 고갈상태에 있는 것이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현실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되고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는 안정된 자원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이란

봉사단체 재정지원…국회심의 보류중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지원기구 구성,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 배치, 확인, 허가 등 담당기구 마련과 자원봉사단체의 재정과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것.

이에 여야가 선거운동자원봉사자 활용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봉사지원기구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관주도로 할 것인가, 민간주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재정과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여당의 방안에 야당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지원법안은 올 7월 발의됐으나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법안상정에 대해 여야의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80여 민간단체들이 국회의 처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시론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권 오 현
〈대한불교 진흥원 사무국장〉

온통 세상이 불난집 같다.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 TV드라마가 부채질까지 한다. 역사는 후세의 사가들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하지만 요즈음은 TV가 앞장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월간조선 12월호는 이들 TV극화를 영상테러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장장 27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말이다.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 드라마는 배역만 다를뿐 그 내용은 유사한데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내용을 비교하며 비분강개하기도 하고 어느 드라마가 옳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2개의 TV채널이 상승작용을 하는 까닭에 시청율은 높아만 간다. 이들 TV극화의 내용은 제 4공화국이 출범되기 이전인 12·12와 5·18을 주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

가히 요즈음의 정치관세와 어울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리와 관련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땅의 재벌 총수들이 몸을 움추린 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4색정당은 당리와 당략에 따라 제몸 추스르기에 바쁠 뿐 국리민복은 아예 도외시 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 대선자금 공개공방전이 열을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5·18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다로 설전을 벌일 뿐 아니라 5·18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돌연 소취하까지 해 헌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코리아 게이트등 TV드라마와 오늘의 정치현실이 어느것이 꿈이고 어느것이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럽다. 내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혼돈이다. 혼돈은 일곱구멍이 뚫린 후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땅의 정치현실은 수천개의 구멍이 뚫린바 되어 피를 토하고 있다.

TV드라마와 '12·12' '5·18'

코리아 게이트 등 드라마의 장면처럼 12·12와 5·18, 그리고 신 군부가 탱크를 앞세워 '서울의 봄'을 무력 차단한 사실은 누가 뭐라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업보를 받는 것이 불가(佛家)의 진리이다. 과학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요즈음의 인과는 제트기보다도 빠르다.

개인의 업(業)도 그러하고 공업도 그러하다. 이 엄연한 인과의 법리를 부정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카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결론을 앞에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종점에 도착한 전차가 승객을 갈아태우고 다시 역진한다고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점에 도착하지도 않은 전차가 중간 지점에서 역진할 때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다.

軍 사기 저하내용은 금물

이땅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와 사찰들이 있다. 성직자도 많고 수천만에 이르는 신도도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구잡이로 함께 돌아가고 있다. 어느 사찰의 현판글씨가 노 전대통령이 쓴 글이라 하여 철거 운운한 기사가 있었다.

불자들의 의연함은 이제 이땅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그저 시류에 따라 청룡열차나 타고 어지럽게 돌아가야 하는가.

5·18과 12·12를 놓고 위정자들은 앞 뒤 없는 전차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전진 후진 혹은 궤도 이탈을 하기도 한다.

정치 드라마 코리아 게이트와 제4공화국이 오늘의 정치현실과 맞물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5천억 비리가 그러하고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 발상들이 그러하다. 청룡열차처럼 마구 어지럽게 돌아간다.

일부 정치군인의 행위가 TV 전파를 타고 오락성까지 곁들여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국방을 본연의 업으로 알고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훨씬 더많은 군인들의 위상과 명예가 마구 휩쓸려 스러지고 있다. 군인의 생명이랄 수 있는 사기와 패기가 눌러앉을 때 과연 국방은 누가 대신 맡을 수 있겠는가.

이런 때일수록 대다수 많은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 참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따뜻하고 전폭적인 성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연기(緣起)의 잣대로 사물을 관찰하고 비원(悲願)의 눈으로 저들의 참회를 품어 안을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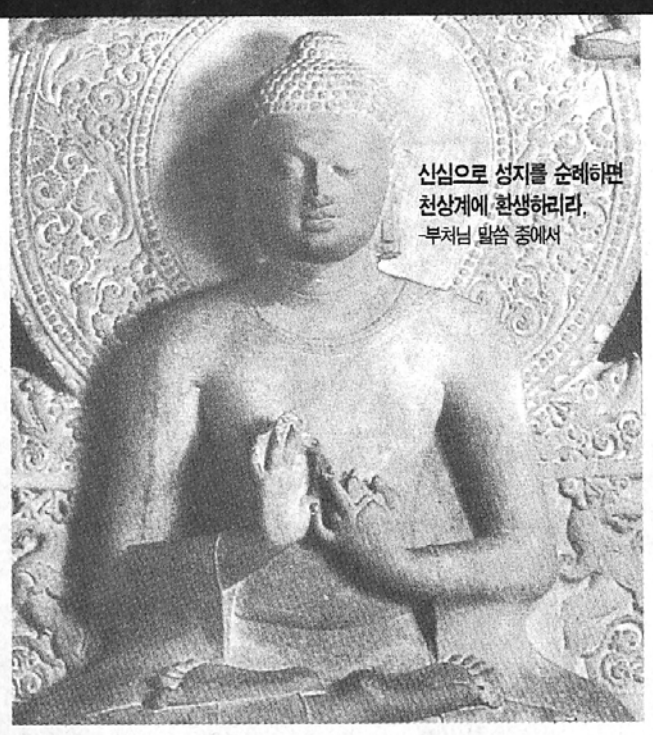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의 주역들을 역행(逆行)보살의 화현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아쉽다. 그리고 이를 거울삼아 나를 바루는 자성(自省)의 외침이 없음을 못내 아쉬워 한다.

KAL WORLD TOUR KAL 월드투어
'95. 10. 1~'96. 2. 12
인도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

"인도 불교성지 순례 — 깨달음의 시간에 KAL 월드투어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향기가 서린 땅 -
그 위대한 성지를 순례하고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전에서
성도절 특별법회에 참가하는 감격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울 델리 대한항공 전세기 운항
1차 '96. 1. 24~2. 3(10박 11일)
2차 '96. 2. 2~2. 12(10박 11일)

인·도·전·세·기·성·지·순·례·일·정 ₩1,420,000
• 정부인가 조건임

1/24 2/2	1	서울 델리	1/30 2/8	7	쿠시나가르 발람푸르
1/25 2/3	2	알라하바드 바라나시	1/31 2/9	8	발람푸르 럭나우
1/26 2/4	3	바라나시 부다가야	2/1 2/10	9	델리 델리
1/27 2/5	4	부다가야 부다가야	2/2 2/11	10	델리 델리
1/28 2/6	5	부다가야 파트나	2/3 2/12	11	델리 서울
1/29 2/7	6	파트나 쿠시나가르			

• 1급 Hotel2인1실 기준
• VISA요금(인도 비자/W31,000별도
• 신청금W100,000-한일은행 009-03-011006/예금주 (주)한진관광1급 Hotel2인1실 기준

精誠을 다하는 旅行의 名門
50년 미래로 길을여는 韓進觀光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132-4
예약상담 726-5750
726-5771~7 (임재영과장/김석준)

지점 및 영업소
• 부산 463-2115
• 경주 745-3070~3
• 대구 426-6706~8
• 광주 228-0041~2
• 대전 252-2034~5
• 제주 42-7217
• 필레스호텔 536-0368~9
• 가든호텔 718-3140~1
• 서울프레싱스호텔 566-1768
• 리츠칼튼 3453-3489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더불어 사는 삶 외면 '다함께 죽는길'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가 모두 인연법으로 묶여있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㉟

생명의 공존

모든 생명체 '먹이연쇄'로 자연조화 이뤄
어떠한 種도 천적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경집(經集 Suttanipata)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셋타대, 너희들에게 생명체들에 대한 종의 구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리라. 종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를 알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종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종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메뚜기에서 작은 개미에 이르기까지의 곤충들이 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발 달린 동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알아야 한다. 이와같이 이러한 태어남에는 태어남에 기인하는 특징이 각기 다르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태생의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파악한 다양한 생명체의 종류는 나무와 풀, 곤충, 네발 달린 동물, 파충류, 물고기, 새와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은 다른 하위 종에 비해서 다른 모든 종을 대표하는 최상위의 생명체로 묘사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식물도 분명히 여기서 생명체(pana)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중생(衆生)의 의미에는 식물이나 동물은 빼고 인간만을 취함으로써 초기 경전에서 주장하는 개념적 균형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식물도 생명체로서 중생의 개념에 속한다.

모든 생명현상은 두개의 볏짚단이 상호의존해서 서 있듯이, 어느 것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것도 성립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강한 의존관계는 생명현상의 먹이연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에 파리, 모기 등이 창궐한다고 물구덩이를 없애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논밭의 메뚜기는 농약을 쳐서 없애 버렸다. 그 결과, 그러한 곤충들을 먹이로 하는 새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파리, 모기, 메뚜기 등은 원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새들과 그들의 노래소리는 영원히 살아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새들의 먹이였던 곤충이 소멸하면 새들도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류가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국제자원보존연맹(IVCM)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1백56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실천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어느 한 생명체나 종이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어떠한 종도 천적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르러 극명하게 밝혀진다.

한 독일의 생태학자는 동물실험에서 한 호수에 개구리의 모든 천적을 없앤 뒤에, 한 쌍의 개구리가 낳은 수백만 마리의 알을 모두 부화시켜 개구리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호수에 백만마리의 올챙이가 모두 부화하자 한 호수에서 올챙이들끼리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올챙이가 한마리도 남김없이 사멸하는 결과가 생겨났다. 그 이유를 살펴본즉 올챙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독극약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호수의 물이 오염되어 어느 시점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이었다.

개구리의 천적을 인위적으로 없앤 결과 실현된 것은 개구리의 천국이 아니라 모든 개구리의 사망이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서 애쓰는 현대문명은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의 종으로서 모든 다른 종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요즈음 유치원 아이를 둔 일부 불자 부모들 가운데 식사때 마다 황당한 경우를 당하곤 한다. 식사에 앞서 아이들이 두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타 종교인 교사들에 의해 식사예절로 배운 것이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그 불자 부모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금주의 주제 공양게

수많은 이들의 공덕에 감사

'맛' 탐닉하기보다 수행위한 '藥' 삼아야

이에대한 답은 간단하다. 불교에도 '바루공양'이라는 전통적인 식사법이 있다. 부모들이 먼저 식사에 앞서 합장하고 공양게를 외우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바루공양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복잡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바루공양을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양에 앞서 외우는 공양게와 공양의 의미는 소중하다.

공양게는 먼저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노고를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들이 받는 음식은 농부의 피땀흘린 노고와 함께 수많은 이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음식을 내가 부끄러움없이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 반성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뜻은 탐진치 삼독을 끊고 허물을 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으로 맛에 탐닉하여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을 위한 좋은 약으로 먹는 것이다.

불자가정의 식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식사에 앞서 온가족이 합장하고 약식 공양게를 외우도록 하자.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들의 공덕을 생각하며 도업을 이루는 약으로 삼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신행수첩

월간 '해인' 가족모임

편집진 필자 독자 한 자리에

월간 〈해인〉을 만드는 편집진과 필자, 그리고 독자들이 한해를 마감하며 한 자리에 모여 흐뭇한 시간을 갖는다.

월간 〈해인〉은 오는 12월 23~25일(2박3일) 해인사에서 독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수행과 강연, 대화의 시간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인가족모임'을 마련한다.

초청강사와 강연주제는 현재 〈해인〉지 필자로 이철수씨의 판화이야기, 주명덕씨의 표지이야기와 문화교양강좌로 민희식교수(한양대 불문과)의 '법화경과 신약성서의 비교' 장희옥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자의 사회인식과 자세'와 '불교의 생활화' 그리고 TV드라마 '옥이이모'의 작가 김홍경씨, 작가 현진스님과의 대화 등이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매일 새벽예불로부터 백팔참회를 하며 명상을 통한 요가수행도 경험한다. (02)312-6548



◇월간 〈해인〉 편집진, 필자, 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과 강연, 대화를 갖는 해인가족모임이 해인사에서 열린다(사진은 작년 첫회 모임).

진취적 기상 기르는 화랑의 후예

동쪽나라 26일~1월16일 수련캠프

우리는 화랑의 후예.
일상생활에서 탈출하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심신을 단련하고, 진취적 기상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겨울캠프가 천년고도의 땅 경주에 마련된다.

지난 6년동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던 월간 '동쪽나라'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수련캠프 '화랑학교'를 개설, 화랑을 모집한다.

국민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펼쳐지는 화랑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택견, 활쏘기, 전통놀이, 우리음악 등을 배운다. 또 역사탐방을 통해 찬란한 신라의 문화유산도 돌아본다.

윤경렬선생님을 교장선생님으로 모시는 이번 화랑학교는 다양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263-1387

역대고승 머무른 윤필암

용진신행회 사불산순례

여름내내 울창했던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겨울산에는 독경소리 울려퍼지는 산사가 있어 더욱 아름답다.

특히 경상북도 문경의 사불산(四佛山)은 오랜 옛날부터 원효, 의상, 나옹, 무학, 함허등의 고승들이 머물렀던 대승사, 윤필암과 같은 암자들이 산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용진신행회는 오는 12월10일 사불산 윤필암과 대승사 참배를 떠난다.

사불산의 산마루에는 6C경 붉은 비단에 싸인 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오는 사면석불상(四面石佛像)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석불바위를 왕이 와서 친견하고 창건했다는 대승사는 겨울산사의 고적함과 자재로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02)279-1191~3

신세대는 옛것도 알아요

봉화산 수련원, 한문서당

한문공부로 역사를 배워요!

온 가족이 가슴을 조이던 수능시험을 비롯해 학사일정이 마무리 되는 12월. 12월엔 간만의 여유를 만끽하기에 제격인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다.

봉화산청소년수련원은 한문서당을 개설, 실력향상은 물론 예절습득과 인성개발의 기회를 오는 24일 마련한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청소년수련원내에 개설되는 한문서당은 남녀 구별없이 국민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96년 1월18일까지 연다.

〈사자소학〉〈생활한자〉〈명심보감〉 등을 교재로 배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보는 것도 신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사고이겠다. (0525)42-2991

불교, 원전으로 만난다

가산불교문화연 강좌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96년도 제1기 연구회원을 모집한다.

저녁 7시30분~9시까지 연구원법당에서 격주로 진행되는 불교원전연구회에는 한문불전연구과정(금)을 비롯, 범어(월)·티벳어(화)·팔리어원전연구과정(수)이 개설되어 있다. 강의는 원장 지관스님과 이종철 연구위원(서울대 강사), 허일범 진각대학 교수, 최봉수 동국대불문硏 상임연구원이 각각 맡는다.

12월31일까지 입회원서 1부와 사진 2매를 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3

흑성 넘나드는 시간여행

불교문화센타 영화상영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 보는 연말이다.

이런때 시간여행을 하는 것은 무척 경이로운 일이다. 불교문화센터 영화보기모임은 오는 8일 오후7시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시간여행을 떠난다.

첨단 테크놀로지 SF액션 '스타게이트' 영화내용은 삶의 낙을 잃어버린 잭 오닐 대령이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신비한 원형유물로 수백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한 혹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이 혹성의 지도자는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기위해 지구인의 육체를 취하고…. (02)703-0108

"석가산 큰스님께 드리는 말씀…"

큰스님 그간 법체 여여하신지요?

큰스님께서 원융결사에 임하시면서 화엄경 사경이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사경이 끝나지 않으면 사경실을 나가지 않겠다 하시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중생의 목적과 성불의 제1의제도 중생과 더불어 노니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큰스님께서 평소에 행하신 범행과 불교학문은 높으신 견식과 번뜩이는 선지에 저희들은 항상 경외심을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큰스님이 계시지 않으신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큰스님께서 결사 하신 후에야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이상 큰스님의 자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께서 원융결사를 하신 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제자들이 큰스님의 사자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정진하시는 성불의 목적도 중생계에서 중생과 노니기 위해서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대홍수 때에 사경실이 떠내려갈 위기 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용맹정진으로 사경에 진력하시던 큰스님의 모습에 저희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엄숙함으로 환희를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스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사경도 끝내시었고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용맹정진으로 납자의 귀감이 되셨으며 또한 중생계에 사표가 되시었습니다.

큰스님! 이제는 원융결사를 해제하시고 저희들과 중생계를 위하여 설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간곡한 청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애타게 감로법을 기다리는 중생을 위해 사자후의 무진법문을 전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다시 한번 청하옵건데, 큰스님께서는 증득하신 바 법열에 자적하실 수 있으나 널리 중생계를 위하여 묵언과 결사를 해제하시어 감로법을 전해 주시옵소서!

●중화민국 : 진혜향, 진혜여, 등혜인 ●싱가폴 : 임준명 ●미얀마 : 슈완 ●대한민국 : 김능혜
●말레이시아 : 마진 ●태국 : 구네 ●스리랑카 : 르완랑카 ●화엄사경회 : 손무량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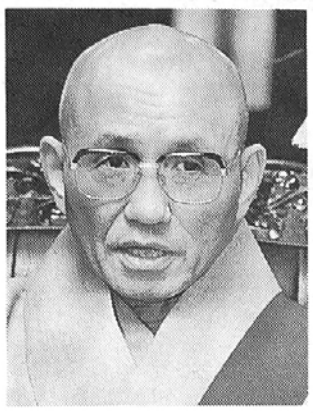
세속 유발 제자 각국 대표 일동 합장

한국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 보리정사, 원융사, 영산불원, 서림선원, 석굴암, 가야정사, 대원사, 극락정사, 지장정사, 불광사, 시흥5동 복지관, 화송 어린이집, 배꽃 어린이집, 강동경찰서 경승협의회, 꿈나무 어린이집,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한·스리랑카불교문화교류협회, 한·인도불교문화교류협회, 한·싱가폴불교문화교류협회

구생종찰 원융사 석가산큰스님문도회일동합장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한돌

월주스님



개혁실현 터다지기 '자부'

"사회참여 주력…방송국 3~5개 더 추진"

"1인 독점운영 체제에서 총무원 종회 호계원등 3권분립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 역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등 3원 체제로 역할이 분담돼 민주적 운영과 종단안정에 주력하면서 1년을 지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개혁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던 월주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스님은 "새 종헌 종법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의 정착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방자치화, 재산 관리의 투명화, 종무행정 전산화에 노력했다"고 밝히고 "특히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불교가 사회구제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고 비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에 나름대로 큰 점수를 준다"며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스님은 겸직금지등 총무원장의 역할 축소로 '강성 종회'에 눌린 '약체 총무원'이란 시각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대표기구인 종회에서 결정되는 의견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신속성은 없지만 종회와 총무원이 같이 종단 현안에 대해 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종회에서 결의된 '사면권고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에서 분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선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선학원의 90%가 조계종 승려이고 신도이기에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 스님은 선학원 문제가 원만히 수습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서 신심있고 지도력있는 새 인물을 중앙신도회장으로 물색하고 있다는 월주 총무원장은 오는 20일쯤 집행부를 일부 개각할 계획을 밝히며 내년엔 "정부에 3~5개의 불교방송국을 더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미래 불교중흥의 동량 육성"

일념 장학회 설립

양종윤 보살



"그동안 미력한 힘이나마 불교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창립 24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불심을 바탕으로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말 '일념장학회'란 이름으로 재단법인 인가를 받고 설립기념 행사준비에 바쁜 듯회 회장 양종윤(법명 선법장)보살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젊은 불자를 육성키 위해 고등학생(10명)에게는 1인당 연간 30만원, 대학생(7명)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자장애인 학생과 불교장애인 단체에서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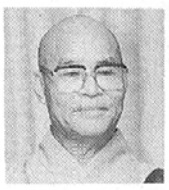
양씨는 "신심깊은 청년불자들이 의욕 하나만으로 불교중흥을 위해 뛰어다니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하기도.

'일념장학회'는 지난 71년 경봉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11명의 발기인으로 창립된 이래 사찰에 팔만대장경 기증, 중앙승가대에 매년 1천만원씩의 장학금을 5년간 지급해 왔다.

부산=박병근 기자

교차로

동국학원 이사장에 재선임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동국학원 제135차 이사회에서 제18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스님은 지난 1일 오전 11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직무에 들어갔다.

자원봉사 국무총리상 수상



정진스님(불교간병인협회 회장)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자원봉사표창 국무총리상을 지난 5일 받았다.

불교인권위 계훈제씨에 성금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지난달 27일 오전11시 재야운동가 계훈제씨가 입원중인 서울대 병원을 방문, 2차 모금액 9백81만원을 전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현판식



종실스님(청교련 대전지부장)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부 사무국 이전(연화사 내)식 및 대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한일과거청산본부' 상임의장

김명윤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는 지난달 29일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의장에 선임됐다. 김의장은 지난 7월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협약



송석구총장(동국대)은 마이크로소프트사(대표이사 류승삼)와 지난달 29일 총장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대학교육기관 협약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증받게 됐다.

기업문화 주제 특강



김종규관장(삼성출판박물관 삼성출판사 회장)은 12월4일 오후6시 배재대 정책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기업문화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금강경 독송안내서 펴내



박동만교장(동대부중)은 지난달 10일 금강경 독송의 안내서 '금강경 독송과 밝은 생활의 길'을 펴냈다.

인 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일자로 문화예술대학원장에 **홍윤식**교수(역사교육과·박물관장), 연구교류처장에 **임기중**교수(국문학과)를 각각 인사발령했다.

푸른제복 전법 25년 '보람의 회향'

군포교사상 첫 만기전역 임 봉 준 법사

군법사 2기로 군포교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외길을 달려온지 25년. 지난달 30일 전역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나는 임봉준법사(대령, 군종실장)를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만나 군포교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들었다.

—군법사로는 첫 만기 전역을 하셨는데요. 4반세기를 회색 가사와 푸른제복을 번갈아가며 오직 군포교에 헌신해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원없이 열정적으로 군포교를 했습니다. 부처님 전 법사명을 다하고 나니 다소나마 불은에 대신한듯 하여 흐뭇합니다.



—군법사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포교 초창기의 어려움은 말로써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군법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인식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포교현장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법사가 부족해 군단급에 법사가 한명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 기존의 군목사와 신부들의 비협조속에서 천막을 빌리거나 여름에는 나무밑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을 빌렸고 막사를 법당으로 개조해 이용하다가 80년대 이르러 대대적인 군법당불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에 2백90여개의 법당이 있으나 교회 7백여개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흔히들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랜기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군포교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조직입니다. 특히 여성불자가 많은 불교의 경우 남성불자를 확보하는데는 군대만큼 좋은 마당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3년간의 군생활동안 확고한 신심을 심어주었을 때 불교의 인식이 달라지고 사회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범 종단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법사님은 7, 8, 9, 11대등 네차례에 걸쳐 군승단장을 역임하면서 군승의 제도적 보완과 군승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승을 80명으로 늘리는 등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특히 군승특별교구설치등 군승위상 정립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아직도 군법사는 비승비속의 위치에 있는듯 합니다.

"목탁소리없는 부대 수두룩…선방 수행에 여생"

▲군승은 곧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법사는 결혼할수 있으니 승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4년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군법사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군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양성화해야 합니다.

—법사님은 청정비구로 군포교를 펼쳐와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은사 경산스님이 청정비구의 기수로 정화를 이끌었고 군승제도를 이룩했던 것처럼 청정비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정신만이 포교의 황무지인 군대에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려에게 수행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전역도 했으니 선방을 찾아 수행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준엽 기자



구화산 인덕방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25일 중국 구화산 인덕방장스님 일행의 예방을 받았다. 월주스님은 "한국의 고승이 중국의 성지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은 매우 자랑스런 일"이라고 했다. 인덕스님은 "월주스님을 꼭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덕스님은 이어 27일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방문 경주에 김교각스님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 1일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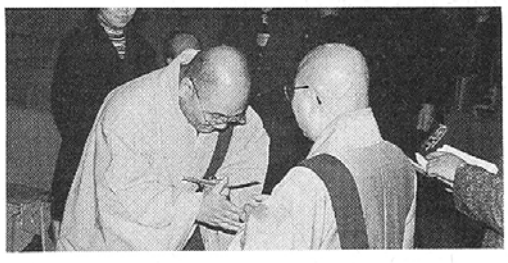
불광사 기아기구에 자비의 종 전달

불광사(주지 법일)는 28일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에 자비의 종 40여개를 전달했다. 불광사는 지난 여름부터 신도들에게 저금통을 나누어주고 이날 1차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불교기아도움기구는 사찰, 학교, 서울은행 전국 지점망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 성금은 국내 결식아동 및 르완다 난민 구호 기금으로 사용된다.



건봉사서 만불명호경 사경집 소지공양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24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만불명호경 사경집 소지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8월15일부터 구룡사 법당에서 1백일동안 만불의 명호를 사경한 1천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각 10권씩 사경한 사경집을 모두 소지공양한 불자들에게 정우스님은 "기도했다는 마음까지 살라버려 허공계의 불·보살에게 공양하자"고 당부했다.



불교복지단체 동절기 보조금 전달식

불교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동절기 생계 보조금 전달식이 지난달 30일 교계 최초로 거행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공동주최로 거행된 전달식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어린이집, 독서실, 부랑인 시설 및 단체 84곳에 모두 1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11월초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깨어있는 교육환경 세계로 달리는 어린이"

■일 시 : 2539년 12월 30일(오후 4시) ~ 2540년 1월 1일(오후 1시)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법주사 입구)

■준비물 : 동참금 4만원, 필기구, 세면도구

강의준비물—가위, 칼, 30cm자, 풀, 스카치테잎, 색종이 2묶음, 쇼핑백(큰 것), 우유팩 8개, 음료수캔 1개, 빨대 굵은 것, 하드보드지(10×5cm) 10장, 부직포(30×60cm) 1장

※ 강의 준비물은 필히 지참(본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TEL (051) 808-4569, 4570
FAX (051) 808-4571

■지급품 : 1만원 상당의 어린이 법회교재, 연수교재

군종병은 사단법인불국토에서 동참금 50%를 지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여러분!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 포교에만 앞장서은 본회가 제2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라는 자리를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이번 연수회는 2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 미처 갖추지 못했던 포교사로서 수행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어린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린이를 교육하는 깨어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가슴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조정관 합장
회장 석철오

제20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내 용	강 사	비 고
'2540 청소년 포교의 해 —포교활성화 방안	성타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부처님 진리,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재가자의 기초 수행방법	도법 스님	조계종 교육위원장
불교의 신앙체계와 신행생활	종광 스님	전 화엄학림 학장
변화하는 교육 —어린이 법회가 나아갈 방향	철오 스님	본회 회장
5·31 교육개혁 이후 —국민학교 교육정책과 방향	신 중 식	국민대교육학과 교수
알고 넘어 갑시다 —어린이 교육 타종교는 이렇게 한다	김 경 일	성암교육원 원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실내놀이	김 재 일	서일전문대 레크레이션연구위원
불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작업활동	허 혜 진	전 중앙승가 대학 보육교육과 강사
연극과 마당놀이의 실제	김 성 녀	연극배우, 탤런트
찬불가와 함께	남 희 은	이벤트/천상천하

'집이 뭣고' 평생 붙잡은 화두

산문밖의 수禪

목수 **신영훈** 씨



집은 지을수록/텅빈 항아리/나무를 베고 흙을 짓이겨/대를 세우고/기와를 올릴수록/비어만 간다/몇 차례의 풀무를 거치고/담금질/노동을 통하여/단단히 구울수록/비인 집엔 어둠만 깊다./우두커니/바람벽 떨리는 소리를 들으며/지붕을 보니/박꽃 필 듯한/하늘이 내린다.

〈김신중 시 '집을 짓다'〉

송광사 석굴암 화엄사 금산사 등 하고많은 절집을 지었으면서도 정작 그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집의 형체가 갖춰지면서 그의 마음은 시인이 노래한대로 '우두커니 비어만 가는' 것은 아닐까.

號도 나무 '木' 목숨 '壽'

아니다. 집 한채 짓고 마음 한구석은 그만큼 비어가면서도 그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천연스러운 조화의 꿈을 담아내는 집, 뒷산을 닮은 지붕을 이고 용마루의 늘어진 곡선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집을 그는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그는 이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만큼 더없이 행복하다.

집짓는 일을 해온지 올해로 36년이다. 그 정도의 세월이면 제법 문리가 터졌겠으나, 그는 "집 속의 사람과 집이 함께 보인 것이 이즈음이니 아직 멀었다"고 한다. 당간지주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누군가 바위를 다듬어 세웠을 것인데, 무슨 도구로 다듬었는지, 무엇으로 운반했는지, 수평·수직은 무엇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증은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몇이나 되겠어요."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5천년의 역사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땅 구석구석에 조상들의 노동의 숨결이 배어 있어요. 이것을 밝혀내어 지혜로 삼을 줄 알아야 비로소 잡다운 집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조상들의 지혜와 세계관을 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일이 집짓는 일과 더불어 그에게 맡겨진 또하나의 몫이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닌다. 멀리 바다건너 외국에까지 다녀온다. 집보러 다니기 위해서다. 이번 달에도 일본에 다녀올 작정이다.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뭣고' 하면서 본다. 구산스님이 일러준 방법론이다.

"다섯 사람이 창덕궁에 갔다 합시다. 똑같이 보았으나 '이 뭣고' 하면서 바라보는 눈에는 보았던 건물이 필름에 담기 듯 재생됩니다. 미심쩍은 부분과 덜 본 부분이 보입니다. 다시 봐야죠.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 뭣고'는 최상의 방법론입니다. 내부로 향하는 눈입니다. 집짓는 일 뿐만아니라 모든 일에 통하는 방법론입니다."

구산스님은 그에게 지원(智圓)이라는 법명을 주셨다.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말씀없이 돌아가셔서 알 도리가 없다. 다만 그뜻을 그 나름대로 풀어본다. 왜 그렇게 어렵고도 고상한 이름을 지어주셨나 싶어 여러가지로 궁리하였지만 확연하게 의미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진지(眞智)할 수밖에 없는 팔자소관이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할작시면 겉핥기에 만족하지 말고 깊이깊이 추구하여야 되고, 그래서 비로소 진지(진리를 깨달은 지혜)를 얻게 되면 게을리하지 말고 그로부터 만사에 충실하면 틀림없이 원명(圓明)하여질 터이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인 듯해요."

잘지은 집보러 전국만행

살아온 날의 절반쯤은 절밥을 먹은 그이지만 정작 불교는 그에게 여전히 대하기 어렵고 송구스러움이 앞서나 보다. 계받는 날 아침 풍경이 그러했다.

새벽에 깨어 정제하고 법당 앞에 나아갔다. 아직 한번도 정식으로 아침예불에 참예해보지 않았던 터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빙빙 돌다가 돌아섰다. 법당의 문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겨우 반배만 세번 드리고는 도망치듯이 지정된 방으로 와서 담배를 피워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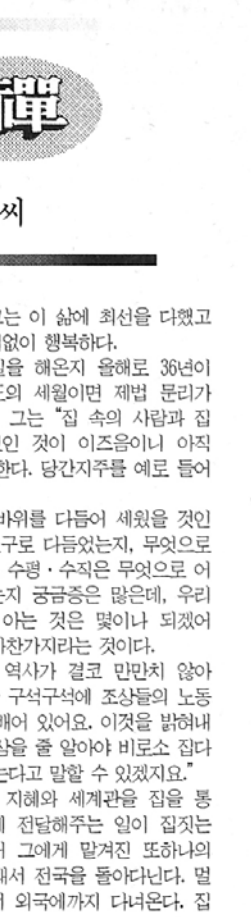
돌아와 좌정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예불을 마치고 바로오신 듯 가사를 입으신 채로 구산스님이 들어오셨다. 그 특유의 웃음을 보이시더니 방을 한바퀴 돌아다보시고는 "있다 아침먹고 내 방에 좀 오시게나" 하신다.

그리고 '이 뭣고'란 화두를 주셨다. 평생을 두고 이 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과제이다. 그는 자신이 없었지만 "예"라고 대답부터 했다. 그날 이후로 '이 뭣고' 대신 '집이 뭣고'를 평생의 화두로 붙잡고 있다.

정성운 기자

한옥짓기 36년 외길…"겉핥기 멀리하고 만사 충실"

"용마루 늘어진 곡선이 아름다운 뒷산을 닮은 지붕 올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집다운 집 구상중"





삽화 · 이기선

염라지옥 죄질따라 처벌엄격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⑬

염라(閻羅)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법에 차별상이 있으면 그것은 법이라 할 수 없다. 한문으로 '水來水去' 하는 모양을 따서 '法'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다. 물은 습윤의 기운이 있으므로 평지에서는 머물지만 비탈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항우장사가 막으려 해도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습성의 평등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법원 주변에서 나돌았다 하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이 수감되면 특별히 별실에서 생활하게 한다 하니 이상한 법이다. 죄있는 자, 벌받을 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는 동일한 법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 그 죄질이 무거우면 더욱 가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정칙으로 되어야 한다.

불교의 지옥설에는 염라(閻羅)라는 것이 있다. 염라대왕이 시왕(十王)을 거느리고 죄업중생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언제나 염라부(閻羅簿)에 세상 살고 있는 일체 중생의 이름을 명기하여 두었다가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사자를 보내어 염라국으로 불러 들인다. 불리어 온 사람은 염라왕에 의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세상 살 때 적선하여 보살행을 한 사람은 서방정토로 보내고 죄질이 간악하고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곤곡하게 한 사람은 화탕, 발설, 독사 등의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염라국의 지옥은 평등하다. 지옥은 죄질에 따라 그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옥 옥졸에게 인정을 넣어 좋은 자리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옥 옥졸은 엄격하다. 지옥이라고 하여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도 질서가 있는가 되물으면 대답할 것이 있다. 지옥은 엄격한 구별이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지옥이 설정되어 있고 그 죄값을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아야 함으로 엄격히 준별되어 있다. 오히려 인간세계의 형무제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야박한 간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앞뒤로 져울질하고, 옆눈질하는 사시적 한계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팔뜨기의 눈짓으로 세상을 요리하려고 온갖 희론과 궤변을 늘어 놓는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의왕콘도에 노태우씨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분통인가. 대도는 무죄인가. 아니다. 대도는 민족을 수치스럽게 하였고 나라를 망치게 하였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다. 너희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한 일등 국민이었는데 올림픽을 개최한 그 대통령이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 기가 막힌다고. 이런 말을 들은 교포의 심정은 어떠할까. 나라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교포의 심회는 어떠할까. 안팎이 좋아야 한다. 번드레한 겉은 옳은 것이 아니다. 까칠한 밖이라도 쓰임새가 알맞아야 한다. 맑음이란 누구나 가져도 부드러운 것이다. 교포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 주간지 표지에 '한국인의 수치'라고 한 것은 당사자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다. 복수형의 명사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의왕 콘도' 국민정서 외면한 것

그러므로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줄 수 없는 형무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니 적당히 하는 치죄는 천부당한 일이다.

국민은 이제 속지 않는다. 다만 속는 척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장 적절한 일이 국민앞에 다가오면 그때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염라대왕의 치법을 배워야 한다. 지옥의 옥졸보다 더 양심을 가지고 법을 운용하여야만 구치소, 교도소, 감호소에 있는 죄수들이 수긍할 것이다. 수긍되지 않는 행형법은 염라를 깔보는 일이다. 여기저기 염라의 명부에 오른 사람들이여, 바로 사자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물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젖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꿀벼랑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불교문화의 새시대를 선도하는—불교텔레비전

한국불교의상 예술제

승복, 개량신도복, 상복, 한복 및 개인 유명브랜드

- 일시 : 1995. 12. 14(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 KBS홀
- 주최 : 부산불교텔레비전
- 주관 : 부산불교텔레비전 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 신도회
  BBS 부산불교방송
  불교계 각 언론사
- 협찬 : 원복사, 이숙희 콜렉션, 오리강, 레빌롱, 유나 혼수방, 양지한복 아리랑 주단, 고려주단

불교 의상 현대화 작업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부대중을 위한 일입니다.

btn 불교TV 32

부 산 불 교 텔 레 비 전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051) 645-5114, 1271
팩스:(051) 631-1772

※ 채널 '32'는 서른두 가지 수승한 모습으로 정법(正法)을 들어보이신 부처님의 32상(相)과 서른 두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들 보수적이다" 이젠 옛말

류승무교수 '한국승려의 정치사회의식 분석'서 밝혀



◇류승무교수

불교는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보수적인 종교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와관련 최근 우리나라 스님들의 정치·사회의식이 진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승가대학 류승무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난 5일 중앙승가대학 교수연구논문 발표회서 '한국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에 관한 일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은 불교의 종교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서 "최근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승려의 정치사회의식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들의 정치 사회의식이 점차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94년 조계종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 장면.

류교수는 "한국 승려들은 6공화국 당시 정부와는 보수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통일문제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거나 오히려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류교수는 또 한국 승려들은 포교활동 이외에도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문제까지도 사회적 활동의 대상이 돼야 함을 당위로 여기거나 최소한 의식차원에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사회의식은 불교공동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이 인용한 '종단개혁에 관한 불교대중 의식조사(현대리서치연구소, 1994)'에 따르면 시급한 사회활동에 대한 견해로 민족문화보급(42.3%), '사회복지문제 해결'(28.8%), 민족통일(12.8%), 사회민주화(5.8%), '빈부격차 해소'(4.8%) 등이 지적됐다.

또 '종단개혁에 관한 설문조사(사회문제연구소, 1995)'에 따르면 포교활동(53.5%), 사회복지활동(28.1%), 인권운동(5.4%), 시민운동(4.8%), 환경(4.0%)·통일(2.8%)·사회민주화(1.4%)운동 등이 시급한 사회활동으로 꼽혔다.

류교수는 "지난 1994년의 조계종사태는 불교와 정부간의 기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우리나라 승려들의 진보적 정치·사회의식의 표현이었다"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한국사회의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는데 스님들이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둔사 내의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민초의 애환 달래온 천년신앙'

정윤섭·이병삼씨 해남지역 미륵신앙 조명

전남 해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미륵과 입석(立石)을 통해 해남지역의 미륵신앙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월 23일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흥)가 주최한 전국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서 국사편찬위원장상을 수상한 정윤섭·이병삼씨(해남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의 '해남지역의 미륵신앙 연구'란 이 논문은 미륵신앙의 성립과 변천, 해남지역 미륵불의 유형별 실제와 미륵관련 전설 등을 다루었다.

논문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래 전래된 미륵신앙은 사찰을 중심으로 신봉되어 오다가 고려시대가 되면서 특수사찰을 중심으로 왕실 및 민중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했던 고려후기에는 민간에 미륵신앙이 널리 성행하고, 점차 민간신앙화 했다.

해남지역에 남아있는 미륵석불은 대략 10여기 정도 파악됐고, 미륵과 관련된 전설도 10여가지 조사되었다.

사찰미륵은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남미륵암 그리고 신안리 석불입상이 있다. 마을미륵은 해남리 고도리 마애불, 계곡면 성진리 마애불, 해남읍 남천리 미륵, 산이면 업자리 미륵바위, 황산면 연당리 미륵불등이 있다. 또 미륵신앙이 들어있는 매향비(埋香碑)와 아들낳기를 기원하던 기자(祈子)신앙미륵, 자연석으로 된 입석미륵도 있다.

이밖에 미륵에 관련된 전설로는 사찰연기전설과 기자신앙전설을 비롯, 금기시된 것을 어겨 벌을 받게 된다는 장자못 전설, 입석전설, 기타 매향비 조성 전설이나 마을미륵 전설 등이 있다.

전통기와, 불교정신 담은 예술품

김현산교수 삼국시대별 조형성 세밀히 다뤄 '고구려—강직, 백제—유연, 신라—세련' 주장

우리나라의 전통기와는 불교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초기에는 기능성이 강했으나 후대에는 종교성과 미(美)가 더 강조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남대 김현산교수(건축공학)는 최근 영남문화동호회가 펴내는 〈중악지〉 제5호에 게재한 논문 '우리나라 전통기와'에서 우리나라 기와는 암수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서양기와와는 달리 암·수키와가 구분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삼국이 다같이 중국 남북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구려와(瓦)'는 직선적이면서 강직한 반면 '백제와'는 회화적이고 부드러우며 여성적인 느낌, '신라와'는 화려하고 세련된 감각을 지닌다고 대별했다.

이중 백제는 중국의 화남지방과 고구려의 영향을 나름대로 수용, 삼국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와를 만들어냈으며 일본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스카문화의 뿌리역할을 했고, 신라 와당의 무늬장식이나 조와술(造瓦術)은 고구려 백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독창성을 지니면서 발전, 형태와 문양, 사용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또 건물을 짓기전에 쓰일 곳을 미리 고려하여 제작, 목조와가(木造瓦家)의 새로운 건축술을 낳은 통일신라의 와류(瓦類)는 미를 뛰어넘어 국가의 평안과 번영을 소망하는 신라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

경주 狼山 보존방안등 논의

8~9일 신라문화제학술회의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오는 8~9일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와 함께 '95년도 신라문화제 학술회의'를 연다.

'신라와 낭산(狼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신라 낭산의 능지탑(陵旨塔)에 대해(황수영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능지탑 사방불 소조상의 고찰(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경주 낭산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홍광표 동국대교수)'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0561)770-2502

인도철학연구발표회 8일 동국대학원

인도철학회(회장 이기영)는 오는 8일 오후 2시 동국대대학원 L310호에서 학회지 〈인도철학〉 제5집 발간과 동시에 제6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되는 논문은 동국대 정승석교수의 '미세신(微細身) 개념의 전개'를 비롯, '상윳타 니카야에서 아트만에 대하여'(이은덕) '즈냐나가르바의 이제설(二諦說)에 대하여'(최경아) 등 4편이다. (02)260-3133

'종교와 인격' 주제 학술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동국관에서 '종교와 인격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용표 동국대불교문화硏 상임연구원의 '불교와 인격교육'을 비롯,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독교 증산교 무교(巫敎) 등 각종교의 인격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02)275-6607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기독교 친척을 불교로 이끌고 싶어

문 가까운 친척중에 집안 전식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분들을 불교쪽으로 이끌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주영·부산 금정구 금사동〉

답 기독교 교회를 다니든 천주교 성당을 다니든 내가 이 세상에 출현했으니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교를 믿든 주처는 내게 있다! 나 이외의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분들한테 그점을 일러주세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主)하나님의 그 주는 나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다. 하나님이란 어디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근본에서 나고드는 당체 바로 그것을 일컬음이다' 라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보세요. 또 '불교라고 하면 기독교와 상대되는 불교, 천주교와 다른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불은 생명의 이치요 교는 마음과 마음이 얽혀가며 세상 돌아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내 종교 네 종교로 패 가르는 것부터가 빗나간 것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십중팔구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찾는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찾을 어떤 대상이 아닌데 그 점을 잘 모르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구분은 사소한 일입니다. 무엇을 믿든 다 한마음이요 하나로 돌아 갑니다. 그분들이 잘 모른다해도 불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지구 상에 온갖 인종·국가들이 있어서 제각기 다른 모습의 살림을 하고 있지만 모두들 지구를 타고서 쉬지 않으며 돌아가고 있지요? 기독교 따로 돌고 천주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따로 도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부터 있어 종교가 벌어졌는데 벌어진 것 거둬들이면 나 하나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나로 귀결된다함은 내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밖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든 주님을 찾든 그것은 자유인데 제발 바깥 대상으로 규정짓지말고 내 마음 안으로 찾으라고 일러주기 바랍니다.

노름꾼 남편을 주인공에 맡겼어요

문 제 남편이 노름을 좋아하는데 얼마전에는 절보고 돈을 안내놓는다며 저를 여러시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래 주인공만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 마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전에도 몇차례나 노름 때문에 제게 몹쓸 일을 하곤 했는데 제가 마음공부가 좀 되어가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보고 친구들은 사람이 넉넉해 보인다,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합니다.

이 모두 가르침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 주부가·경남 김해시〉

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믿어야지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닌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둘 아니게 행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돌아가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문 서울에서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러달 전부터 목이 아프고 뒤로 돌아가면서 좀체로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정밀검사 등 다 해보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강수옥·서울 구로구 독산동〉

답 날더러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늘 말씀드리는대로 나온 자리에 되말기는 도리를 실천해보세요. 모든게 업식의 놀음이고 그런 증세도 다 업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지요. 언젠가 카세트테이프를 예로들어 말씀드렸는데 녹음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것을 녹음하든 공테이프로 만들든 일단 되돌려야 하겠지요. 목이 돌아간 것도 거기서 나온 것, 되돌아가지 않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며 되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학생과 비슷한 증세의 한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을 하는데 빈 방석을 가리키며 저기 부처님이 앉아계시니 삼배를 올려라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그토록 지극정성일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방석에다 대고 극진히 삼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대로 부처님 마음과 한마음이었겠지요? 그랬는데 그분, 버스타고 돌아가는 길에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사람들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우성친다고 비바람이 멎을까요?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장을 믿어야지요. '선장님 당신만이 이 비바람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할 때에 선장도 힘이 더 솟구쳐서 배를 잘 끌고 가게 되겠지요. 마음의 묘용이란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끌고가는 선장만이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제각기 놀지않고 하나로 뭉치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세포의 생명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대한자기"를 아십니까? 무엇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7치:23.1cm) (5치:17.5cm) (1자: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아차" 가격이요.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습니다.
저렴하다고 가짜가 아닌
진짜금(24k) 입니다.

"스님" 생전에 이런 부처님 처음 보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탄복하실 것입니다.
"황금" 불상 궁금하시죠. 전화 주시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대한자기
전화:(02) 508-4164~6
팩스:(02) 508-4166
본사:강남구 역삼동 642-19
공장:경기도 이천

"승속화합 '새종단' 가꾸기 최선"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 초 스님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 태고종은 지난 11월28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제17대 총무원장에 혜초스님(64·영평사 주지)을 선출했다.

—먼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우리 종단에는 종무행정 경험과 식견을 갖춘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총무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 모든 종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단내 산적한 문제들을 이미 마련된 종단개혁 안을 바탕으로 원만히 풀어내 전통종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가 신뢰하는 총무원

—그동안 스님께서는 총무원 부원장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종단 안팎의 대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종단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종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승속의 화합입니다. 화합이 선행되면 종단 정신적인 귀의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정원·비구니 강원설치 등 잠정적으로 성역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구체적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명실상부한 태고종의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최근 수계요건 강화를 비롯 선암사 불학대학 설립, 동방대 각종학교 승인요청 등 태고종이 교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려교육문제는 태고종뿐 아니라 대부분 불교종단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승려의 기본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태고총림 선암사에 불학대학을 설립하고 현 동방불교대학은 교육부의 각종학교 인가를 받아 기존의 재가자 교육기관에서 승려의 기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의 교세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종단운영에 있어 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확충 문제와 전통종단으로서의 태고종 위상정립은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그 문제야말로 개혁종단이 이끌어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사찰의 분담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특별운영기금제도를 마련해 재정안정에 역점을 두고 종단을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태고종단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종단개혁에는 두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개혁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단산하 사찰에 공영화개념을 도입해 모든 사찰이 불교공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질적 향상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계종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태고·조계 분규사찰문제를 풀기 위한 양종단 특위가 만들어지고 양 원장스님이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분규사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분규사찰 문제에 대한 태고종의 입장은 오래 전에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태고종단의 문제가 아니고 조계종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분규종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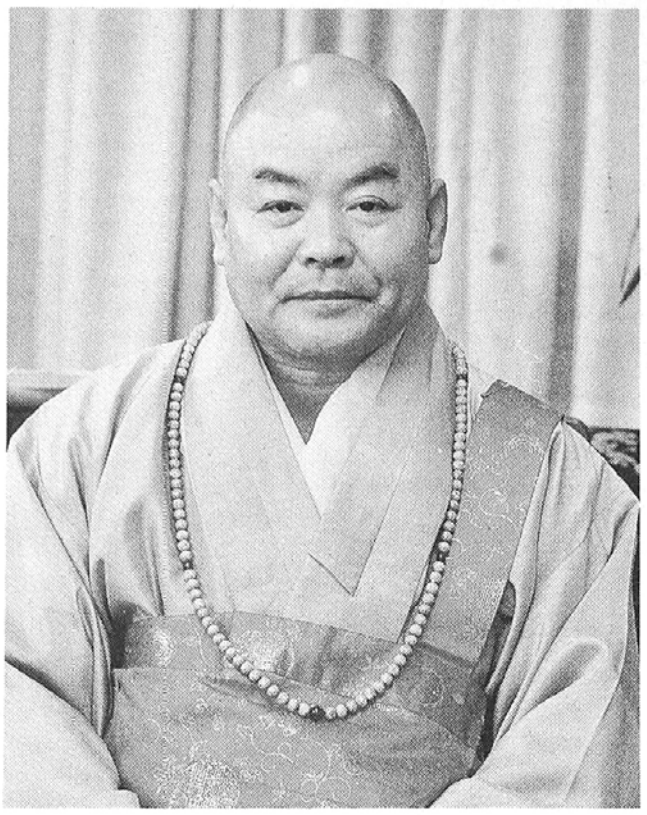
—총무원장을 비롯 종회의장 등 3부 수장이 갑작스럽게 바뀜으로 해서 약간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향후 종단인사에 대한 견해는.

▲전 총무원장스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새로 총무원장이 선출돼 다소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단 개혁이라는 대 명제 아래 총무원 집행부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만큼 여법한 종단 개혁과 안정을 위해 집행부는 최대의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서 화합종단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종회의장 사정원장과 의논하여 개혁에 어울리는 역량있고 신망받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종단개혁은 스님들만이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승속이 하나가 되어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종도들은 새로운 종단가꾸기에 동참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확립과 거듭나기에 용맹정진합시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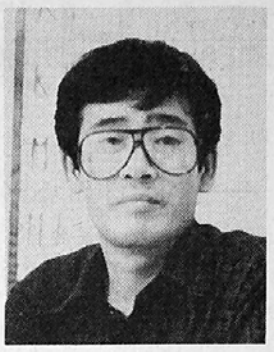


약력
- 45년 김양택화상을 은사로 득도
- 53년 해인사 인곡화상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 등 종단요직과 법륜사 주지등 역임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한국불교사상연구회 이사,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등 역임

교육체계 확립…분담금제도 강화 운영 혁신
종정원·비구니강원 설치 용궁사 성역화 추진

나의 수행일기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 회장〉



20여년전, 그 무렵 나는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 해 학생들을 인솔하여 안성에 있는 칠장사로 봄소풍을 가게 되었다. 그해 내가 칠장사를 찾았을 때는 봄볕 아래 퇴락해 가는 한 고사(古寺)에 지나지 않았다.

칠장사가 오랜 세월에도 내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내게 남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칠장사를 통해 불교와 첫 인연을 맺고 부처님 제자가 된 데서 연유한다. 그 해 칠장사를 처음 찾았을 때 절에 객스님 한분이 와 계셨는데 난생 처음으로 불법에 눈을 뜨게 해 주셨다. 그때까지 불교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들려준 몇마디 부처님 말씀은 오래도록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객승의 그 한마디는 학교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 명제는 가을까지 몇 달이나 나를 잠못 들게 하였다.

그해 10월1일 '국군의 날', 휴일이라서 하숙집 동료들과 사과밭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어기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칠장사로 향했다. 그런데 난생처음 부처님께 참배를 올리고 나니 도무지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다시 부처님을 뵐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만 객방에 눌러앉고 만 것이다.

나의 출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하고 다섯, 벌써 20년 저쪽의 일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가끔씩 칠장사를 다녀온다. 그러나 내가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수행의 징표로 매일 한개씩 쌓던 행자탑도 사라져 보이지 않고 선방 뒤뜰에 땀흘리며 일구었던 작은 밭도 은행나무 밭도 흔적이 없다. 다만 늦가을이면 울고 싶도록 붉은 몇 그루 감나무만 빈 텃밭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칠장사를 다녀오면 한결 가뿐하다. 마치 번뇌의 바람을 비우고 오는 기분이다.

하산(下山) 후 10여년간 교편생활을 하다가 해직이 되고나서 한동안 방송사에 몸담아 TV 드라마를 썼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산은 부처님에 대한 가출(家出)이었다. 한동안 부처님 집안일에 깊이 동참치 못하다가 '보리방송모니터회'로 불교계에 시청자운동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집안에 대한 보은과 하산에 대한 참회로 재가불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下山 참회' 재가불자운동 시작

방송문화상 제정 시민모임 '두레' 이끌어

뜻을 함께하는 사부대중과 함께 MBC의 불법 선교프로그램인 '행복으로의 초대'를 중단시킨 일에서부터 '主日'이라는 종교용어의 방송광고 사용금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바른 방송을 통한 호법을 위해 내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많은 방송사의 각종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한편, 3년전부터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 제작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보리방송문화상을 만들어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교방송 프로그램도 선정하여 상을 주어 격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불교 텔레비전에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또 불교방송의 시청자위원 자격으로 불자들의 목소리를 방송사측에 전하는 심부름도 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방송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송사, 유관단체에 수시로 나가 방송을 통한 불교홍보와 호법을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6년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다.

방송에 관한 일말고 몇해 전부터 새로 시작해온 일이 있는데 '시민모임 두레'가 그것이다. '두레' 그늘에는 문화기행, 생태기행, 민족문화연구소, 가람문학회 등등의 계열단체가 있는데, 특히 관심을 쏟고 있는 부문은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문화기행이다. 1천명의 회원을 가진 이 모임은 사찰기행 등을 통해 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 안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문경 봉암사를 찾아가서 개신교와 가톨릭 등 수십명의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 앞에 108배를 시킨 일은 지금도 회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탄광촌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를 비롯하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한 일도 수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뜻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불공이며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나를 '돈복은 없어도 사람복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럿이서 하는 여럿을 위한 일임을 뜻하는 말이다.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을 해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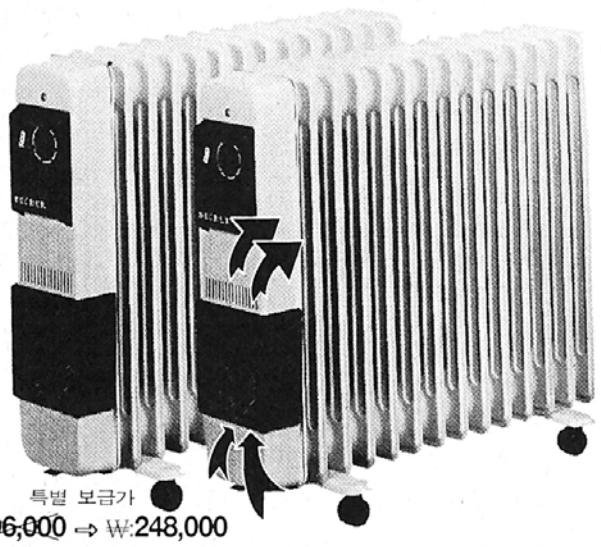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요

BECKER·CALORIC의 장점
-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팬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앞선감각
- 이동이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 요 기 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제 품 사 양

내용 / 품명	BECKER 라디에타
형식승인번호	참 7 - 743
전 격 전 압	220V/60Hz
규 격	(W)82cm×(D)66cm
방 열 관 수	15개
소 비 전 력	1단 : 1,000W, 2단 : 2,000W, 1단+2단 : 3,000W, 2단+온풍팬 2,800W



수입원⇨창고⇨소비자 특별 보급가 ₩:396,000 ⇨ ₩:248,000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가르뎅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감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판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가 타지 않는다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식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모집 전국판매점

남미물류(주)
代:02)516-0114
소비자:02) 566-6373

■광역시
부 산:646-7905~6
광 주:361-1349
대 구:
대 전:627-9484
인 천:434-8844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0333)655-0966
수원:(0331)32-6344
수원:(0331)216-6336
성남, 판교:
일산, 고양:
안 양:43-8949
김포, 강화:

■강원도
강 릉:
원 주:

■경상도
진 주: 43-0880
포 항: 47-8794
울 산:
마 산: 56-7685
거제, 충무:
안 동:

■충청도
천안·온양
(0417)582-4475
홍성·대천·예산:
(0451)34-0121~2
서 산:665-9413

■전라도
전 주: 85-5130
이 리:
군 산:452-0386
여 수:
여 천:
광 양:762-7944
목 포: 78-6428
순 천: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8〉

怡山然禪師 發願文 (이산연선사 발원문) ②

修學一切法門 悉皆通達
수학일체법문 실개통달
廣作福慧 普利塵沙
광작복혜 보리진사
得六通之神通 圓一生之佛果然後
득육통지신통 원일생지불과연후
不捨法界 徧入塵勞
불사법계 편입진로
等觀喜之慈心 行普賢之願海
등관음지자심 행보현지원해

일체의 법문을 배우고 닦아 일체법에 다 통달 하고
널리 널리 복과 지혜를 지어 티끌 모래같이 많은 중생을 두루 이롭게하며
육신통을 얻고 일생 일대사의 불과를 원만 성취한 연후에
중중무진 법계를 외면치 않고 두루 티끌세상의 노고에 몸을 나투어
관음보살의 자비심과 한가지로 마음을 내고 보현보살의 바다같은 행원대로 같이 행하게 하소서.

他方此界 逐類應形 應現色身 演暢妙法
타방차계 축류수형 응현색신 연양묘법
泥犁苦趣 餓鬼道中
니려고취 아귀도중
或放大光明 或現諸神變
혹방대광명 혹현제신변
其有見我相 乃至聞我名
기유견아상 내지문아명
皆發菩提心 永出輪廻苦
개발보리심 영출윤회고
火湯氷河之地 變作香林
화확빙하지지 변작향림
飮銅食鐵之徒 化生淨土
음동식철지도 화생정토

저 세상 이 세상 일체세계에 갖가지 중생류의 모양을 따라 색신을 나투어서 묘법을 널리 가르치고 떨치며
끝없는 고통의 진흙 밭을 가는 지옥세계와 아귀도 가운데서
혹은 대광명을 발하고 혹은 모든 신통변화를 나타내어서
나의 상을 보거나 나의 이름을 듣게 됨에
모두 다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윤회고에서 벗어나고
화탕지옥·빙하지옥은 향림으로 변화하며 끓는 구리즙·뜨거운 쇠를 먹어야 하는 지옥무리는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披毛戴角 負債含怨 盡罷辛酸 咸蒙利樂
피모대각 부채함원 진파신산 함점리락
疾疫世而 現爲藥草 救療沈痾
질역세이 현위약초 구료침아
飢饉時而 化作稻粱 濟諸貧餒
기근시이 화작도량 제제빈뇌
我願無窮 情與無情 同圓種智
아원무궁 정여무정 동원종지
해탈미위장 유회어삼승
安住一切智 轉無上法輪
안주일체지 전무상법륜
我今 稱揚稱性實語
아금 칭양칭성실어
以身口意 籌量觀察 如實懺悔
이신구의 주량관찰 여실참회

털가진 짐승·뿔달린 짐승들과 원수맺고 빚진이들은 모두 신산고초에서 벗어나 다 함께 고루 복락을 누리며
모진 질병이 나타나면 변현하고 약초가 되어 고질병을 치료케 하고
기근이 들 때는 작물로 화하여 모든 이의 굶주림을 제도하게 하옵소서.
저의 원은 다함이 없나이다. 유정과 무정이 다 같이 일체 종지를 원만히 이루게 하소서.

山谷居士黃太史發願文 (산곡거사황태사발원문) ①

昔者 師子王 白淨法 爲身
석자 사자왕 백정법 위신
勝義空谷中 奮迅及哮吼
승의공곡중 분신급효후
念弓明利箭 被以慈哀甲
념궁명리전 피이자애갑
忍力不動搖 直破魔王軍
인력부동요 직파마왕군
三昧常娛樂 甘露爲美食
삼매삼오락 감로위미식
解脫味爲漿 遊戲於三乘
해탈미위장 유희어삼승

옛적에 부처님께서 위없는 청정미묘법으로 몸을 삼고
수승한 지혜·걸림없는 적정 삼매의 경지에 들어 분신한 사자후를 하시며
날카로운 지혜의 활과 화살에 자애의 갑옷을 입으사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매 바로 마왕의 권속을 깨뜨리시니
삼매 가운데 항상 열락을 즐기사 중생제도의 감로로써 미식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써 장을 삼아 삼승에 유희하시며(성문·연각·보살을 두루 열반의 언덕으로 이끄시며)
일체지에 머물러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도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들어 칭송할제
신·구·의로써 헤아려 관찰하며(삼업이 한량없음을 스스로 살펴보며) 여실히 참회 하옵니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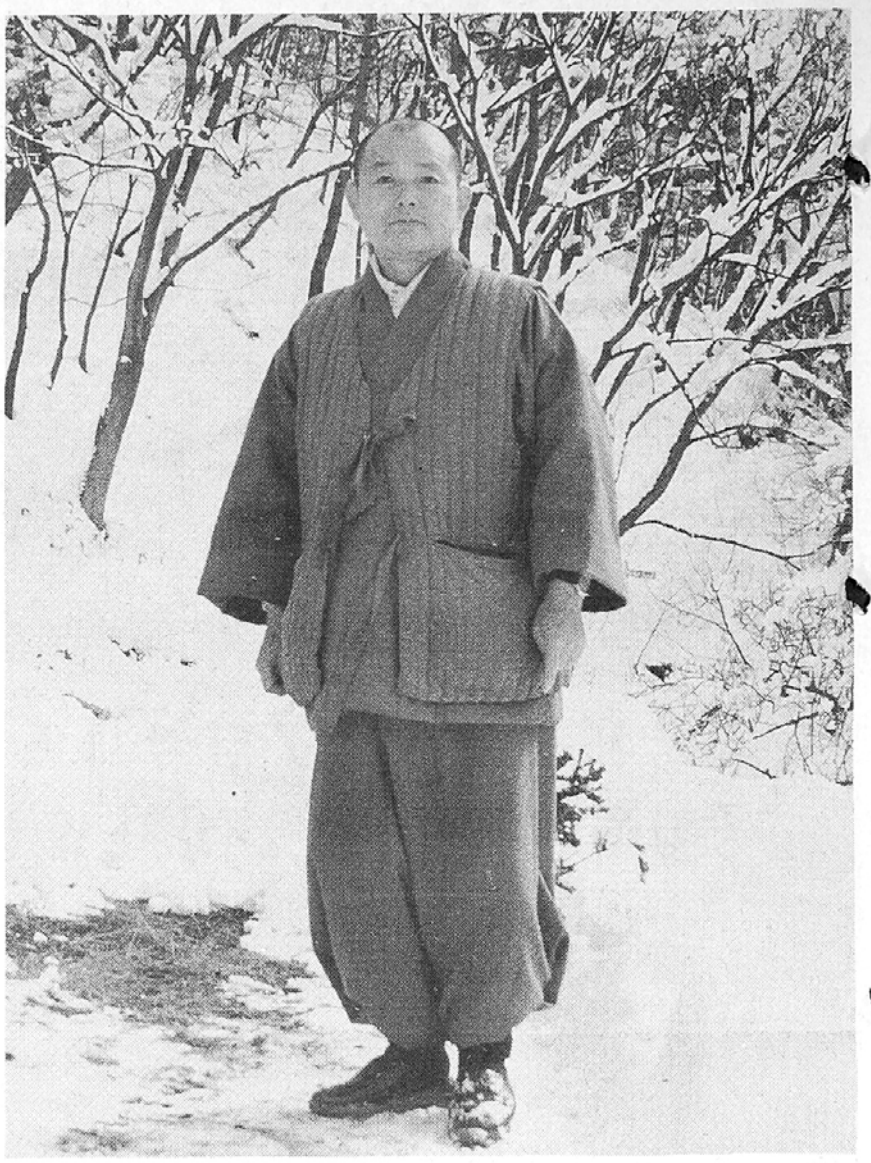
"기근들때 작물되어 굶주림 제도케하고

질병 나타나면 약초되어 치료케 하소서"

지상법석

"불법을 아는 사람은

정영스님 〈갑사 주지〉



약력
- 42년 해인사에서 만공스님 은사로 득도
- 42년 해인사에서 안거이래 20안거 성만
- 67년 서울 천축사 주지역임
- 91년 마곡사 태화선원 조실

"두마리 진흙으로 만든 소가 다퉈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도다."

이 게송은 중국의 유명한 동산스님과 용산스님이 법거량을 하며 읊은 게송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거냐하면, 용산스님이라 하는 대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동산양개선사와 일사 백선사가 같이 용산선사를 뵈었는데 두분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용산스님이 "이 산에는 길이 없는데 어느곳으로 해서 오셨오"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동산스님이 말하길 "스님께서는 어느길로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용산스님이 답하길

"나는 운수납자가 아니니라. 바랑지고 다니는 사람이 운수납자지 나는 운수납자가 아니다" 그러니 동산스님이 다시묻길 "이 산에 머문지가 얼마나 됩니까?"하니 용산스님이 답하길 "나는 봄 가을을 지내지 아니했느니라. 봄 가을을 지냈어야 몇해니 얼마니 할 것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을 지낸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니 동산스님이 말하길 "그러시다면 스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산이 먼저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용산스님왈

"바다가 둘이 아니듯
저 부처나 이 부처나
남자나 여자나
한 마음의 법신입니다"

"모르겠다 산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어째서 모른다고 합니까" 용산스님 답하길 "나는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사람에 의해서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도리를 알아서 그 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러니 용산스님이 답하길 "두마리 진흙소가 다퉈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아무소식이 없소" 했답니다.

저간의 진리를 안다면 우주의 참된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주의 진리인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산스님은 물을 건널때 문득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대오하였는데 말로는 표현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의 경지를 깨쳤던 것입니다. 동산 대선사라는 분이 얼마나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도력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반무렵에 동산스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동산스님이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러자 동산스님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법문으로 그만큼 얘기 했잖느냐.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닌데 왜 우느냐.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슬퍼하니 법문을 더해야 되겠다"하고 다시 살아나 일주일간 제자들에게 법문하였습니다. 법문을 마치고, "너희들 정진에 힘써야 한다.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하고 삭발목욕후 좌정한채로 열반에 들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락가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 부처나 이 부처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같습니다. 통틀어서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바다는 하나지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한마음의 바다요 법신인 것입니다.

내가 곧 석가여래요 석가여래가 아미타불이요 법신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내 나라에 나면, 고통없는 세계에 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극락은 있는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한다고 불교학자들이 마구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극락이 없다면 불교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물질로 되어있지 않고 영체로 되어 있으며 죽어서도 몸이 가는게 아니라 영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극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극락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나한테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부처님같이 숭앙받는 분

재단법인 一念奬學會 설립안내

본회에서는 부처님의 정법과 이나라 불교중흥을 위하여 25년간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를 위하여 일념으로 걸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알립니다.

법인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법인인가 : 사체 81721 — 906호
- ■허가일자 : 1995년 10월 30일
- ■대 표 자 : 양종윤(양선법장)
- ■이 사 : 조인숙 이영채 임금옥 최금순 양명선 이순덕 신수현 하정옥 구양희 김정순 김영자 이수진 김민자 백복자 박순옥 하수영 하정선 이말선 박성빈 구금숙 이외조 조호자 이순이 최정화 이정혜 (무순)

장학제정

재단법인 一念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젊은불자(승가·재가)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제정.

— 다 음 —

1. 장학분야
   가. 대학생(7명): · 불교학을 중심으로 선택한 자 · 인품과 성적이 모범이 되는 자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년 1인, 1백만원
   나. 고등학생(10명):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고 지도법사(교사)가 추천한 자—년 1인, 30만원
   다. 장애인: 불자장애인 고등학생, 혹은 장애인 단체에서 불교에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200만원
2. 수여일자 • 수여일자 : 1996년 1월 중순(별도 개별통지) 본회 설립기념 행사시
   • 접 수 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접수일자 : 1995년 12월 20일까지
   • 문 의 처 : (051) 464-0561

1995년 11월 일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재가자를 위한

동계 위빠사나 명상 수련원 개설

보덕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다만 며칠이라도 동참하여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안 내

- ■기 간 : 95년 12월 27일 ~ 96년 1월 15일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강원도 영월군·읍)
  ※교통편 • 서울 동서울—영월 3시간 소요
  • 기차 청량리—영월 3시간 소요
  • 영월 터미날—보덕사 택시기본료
- ■준 비 물 : 세면도구, 모포
- ■동 참 금 : 1일 1만원
- ■지도법사 : 보덕사 주지 현오스님 (미얀마 72일 저자)
- ■주의사항 : 단체 이틀전 신청 시간엄수, 오후분식, 묵언
- ■문 의 처 : (0373) 374-3169

시 간 표

4시		예불
6시		아침공양
8시		경행
9시		좌선
10시		사시불공
11시	30분	점심공양
1시		경행
2시		좌선
3시		경행
4시	~ 5시	좌선
6시		저녁예불
7시		경행
8시		좌선
9시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 230-8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 12리 1110 / 전화 : (0373) 374-3169

지상법석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극락갈 수 있는 도리는 부처님의 끝없는 위신력을 믿고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신라 원효대사 아닙니까.

원효대사에게 어느날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열반에 들면 다시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겠지요”하니 원효스님은 손을 흔들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5계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요석공주와 관계를 가져 설총을 낳았으니 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 하며 “그럼 지옥에 가신단 말입니까?”하고 되물었습니다.

원효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락에 가느니라.”

젊은 스님은 깜짝놀라 “인간도 못되고, 천당도 못가면서 어떻게 극락에 간단말입니까”하니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건너는데 조그만 배라도 있어야 건널 수 있지않느냐. 아무리 작은 돌멩이도 가라 앉는데 하물며 사람은 가라앉지 않을수 없다. 배를 타고 가야지…. 부처님 배를 타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는데 배를 타고 물위에 둥둥떠서 간다는 겁니다.

이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못가지만 부처님 힘으로 간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누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짓고 싶어 지은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업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은 나쁜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미타불을 부르면 죄가 멸해지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또 불교입니다.

실례로 교도소에 가도 불교신자가 제일 적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재범률도 가장 낮답니다.

원효대사의 극락가는 법을 듣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법당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불교를 안믿는 사람은 긴가 민가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런 못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극락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긴가민가해도 극락세계 문턱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짚고 헤엄치기죠.

극락갈 수 있는 도리로 부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곧 돌아가시게 된 보살님들을 찾아가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극락갑니다”하면 보살님들은 대부분이 그럽니다. “내가 뭐 착한일 했다고 극락갑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만 했어도 아미타불을 염하지 않으면 극락에 못가고 천당밖에 못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반은 나쁘고 반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마음만 먹으면 천당에는 가게되죠. 그러나 나무아미타불을 열번만 부르면 극락에 갑니다. 극락은 죽음이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 법의 미묘함입니다. 부처님만 믿으세요.

옛날 이야기 입니다.

이태조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요즘말로는 쿠데타죠) 처음에는 왕족을 데리고 있다가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되고 나서 중국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가는 사신마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도 자꾸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불심이 돈독했던 조정승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와서 중국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정승을 사신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조정승은 “이제는 죽었구나”하면서도 안갈수 없고해서 가다가다 함경도 시흥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세우게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삿갓을 쓰고 승복을 입은 세스님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정승님. 신표를 가지고 가시면 무사히 돌아올수 있습니다”하는 것이예요.

조정승이 묻기를 “신표라뇨, 무슨 신표말입니까 스님”하니 세 스님이 말씀하길 “이 주막뒤에 돌 부처님 세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부처님을 잘 모셔놓으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보니 허망하게 느껴져서 금새 잊고 잠깐 조는데 또 세스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주저하십니까”하는 겁니다.

조정승이 말하길 “제가 며칠만 있으면 죽으러 가는데 언제 절을 지어 모신단 말입니까”하니 세 스님께서 “고을 원님에게 말만하고 떠나라”고 일러줍니다.

조정승은 아침에 일어나 고을 원님에게 세 돌부처님을 잘 모시라고 명하고 계속 염불을 하며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황제가 목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망나니가 춤을 추고 칼을 휘둘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쨍그렁하며 칼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러기를 세번 했는데 세번 모두 부러졌습니다.

이것을 보고있던 중국황제가 깜짝놀라면서 황금과 비단을 선물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무사히 귀국하여 다시 함경도 시흥땅을 거쳐오게 됐는데 고을 사람들이 모두 곱게 차려입고 주막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정승도 올라가보니 그날이 세 돌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완공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정승은 부처님께 삼배해야지 하며 절을 하려는데 돌부처님 목에 칼자국과 핏자국이 나있는 겁니다.

황급히 고을 원님을 불러 물으니, 어느날 갑자기 쨍그렁 소리가 나며 세부처님이 차례로 목에 자국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가만히 조정승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죽으려던 날과 일치하였음을 알고 깜짝놀랐습니다. 세 돌부처님이 대신 칼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위신력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하도 미묘하여 부처님만 믿으면 극락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해준 부처님 은혜가 백골난망이지요.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 모든 사람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생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떡하니 앉아 자기가 생불이라고 절만 받으려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스님이 아니고, 그정도가 불교라면 불교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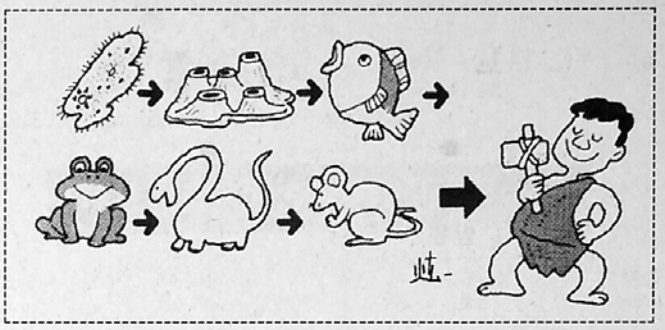
여러분께 극락 갈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말씀드렸으니 모두 극락에 갈수 있겠지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깊이 따르세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苦海를 건너려면 믿음으로 ‘부처님 배’에 타야

“부처님께서 자비로 일체중생을 인도하셨듯 우리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죠”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9

양 형 진

생명 진화

생명역사 35억년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

진화 전과정 상주론과 단멸론 떠난 중도

최초의 생명은 바다 속에서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원시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희박하였으므로,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오존층이 없었다. 따라서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자외선은 여과되지 않고 지상에 도달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물 속에서 생겨났고, 그 이후에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상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화석으로 알려진 최초의 생명체는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퇴적암층에서 발견되었고, 이로부터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남조식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 남조류가 만들어 낸 산소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 대기층에 축적되고, 이 산소에 의하여 성층권에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태양에서 오던 강력한 자외선이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조류를 위시한 생명체들은 지구의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던 방식으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었다. 생명의 역사는 이 단계에서 20억년 가까운 오랜 기간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된다. 그 이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약 16억년 전에 원생동물이 바다에 나타난다. 해면동물은 약 9억년 전에, 그리고 해파리는 약 7억년 전에 나타난다.

5억5천만년 전에 무척추동물이 나타나며, 그 후 해면동물이나 연체동물들이 번성하게 된다. 4억3천만년 전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나타나며, 4억년 전의 바다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나타난다. 육지에서 처음으로 활동한 동물은 노래기 종류로서 그 시기는 3억9천만년 전이며, 어류의 후손이 육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억5천년 전이다. 양서류의 시조는 3억8천만년 전에 나타나며, 그들이 육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억3천만년 전이다. 파충류는 3억5천만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며, 파충류의 한 종류인 공룡은 2억2천만년 전에 나타나 1억5천만년 전을 정점으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7천만년 전에 멸종되었다. 조류는 1억4천만년 전에 나타나며, 꽃식물이 번성한 것은 1억2천만년 전이다. 포유류는 2억년 전에 나타나지만, 번성하게 된 것은 공룡의 시대가 끝난 6천만년 전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장류가 등장한다. 인류의 조상으로서 가장 오래된 라마피테루스의 화석은 1천2백만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되며,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는 3백50만년 전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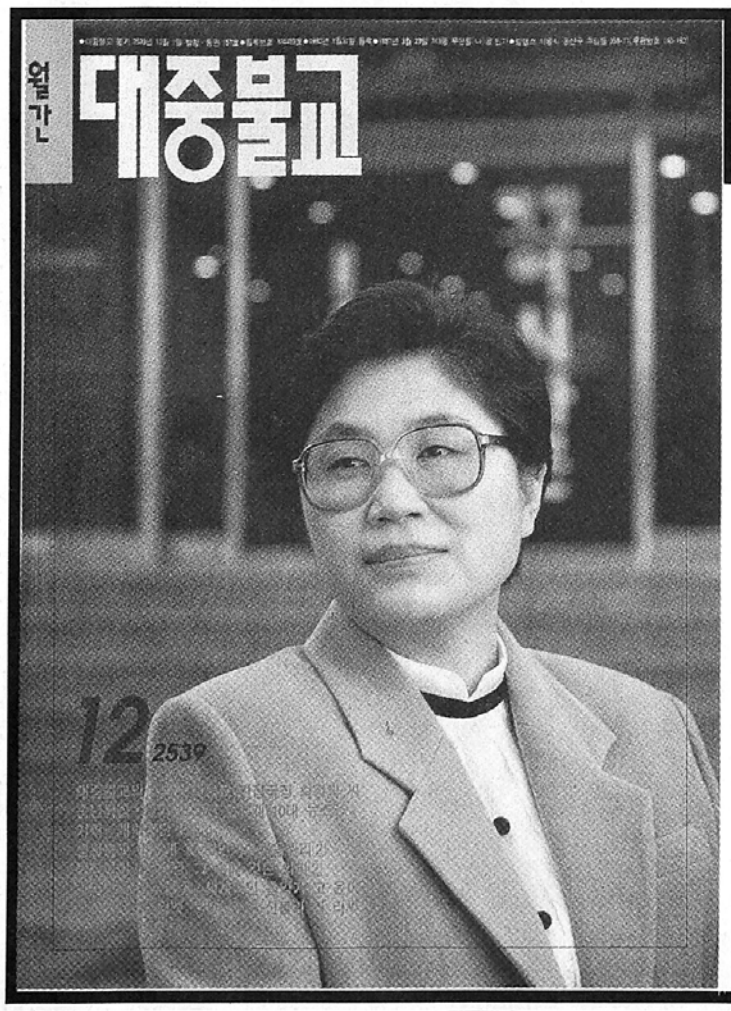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의 역사가 너무 긴 기간을 다루는 것이므로, 생명의 35억년 역사를 1년이라는 기간으로 환산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1월 1일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 났다고 한다면, 원생동물은 7월 말에, 해면동물은 10월 초에, 어류는 11월 20일에, 양서류는 11월 말에, 파충류는 12월 초에, 포유류는 12월 10일 경에 각각 등장한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12월 25일 쯤이며, 현생 인류의 조상은 12월 31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단기간에 걸친 관찰만으로는 생명이 유전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자신의 속성을 보존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은 역사를 본다면 생물의 속성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은 진화라는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는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원리가 개체 생명의 나고 죽음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현상의 전역사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그러한 원리가 있으므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상주론과 단멸론의 양변을 떠난 곳에 생명 현상의 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이란 유전에 의해 그 속성이 지속되므로 단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속성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주일 수도 없다. 따라서 생명 현상도 상주와 단멸의 양변을 떠난 중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하겠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대중 불교

12월호

정기구독신청은 (02) 773-5731, 754-1614

부처님 말씀 •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 5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현대불교 편집국장 최정희 씨 / 김희균 · 14
쇠북소리 • 대통령과 무소유 / 김종철 · 10
귀담아 듣고 새겨불이야기 • 전재성 교수의 제안에 대하여 / 이평래 · 12
젊은 불자 발언대 • 불기 2,600년 사업 구상하자 / 이병두 · 70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 비지금 뒤에 올 환경피해 / 성낙진 · 73

● 송년특집
불기 2539년 불교계 10대 뉴스 / 편집부 · 37
방송 · 국제 · 복지 · 불사 · 교육 · 단체 · 운동 · 문화 · 사건 · 출판

● 기획 / 개혁종단 1년
여전히 나부끼는 개혁의 깃발 / 유지호 · 62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 유승무 · 65

불교교리산책 • 선업과 불선업 / 정승석 · 19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음관리 / 용타 · 22
수행으로 가는 길 • 윤회의 바른 이해 / 이제열 · 26
신행상담 •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합니까 / 상덕 · 61
선화일편 • 내 딸이 아주 재빠르구나 / 설산 · 30
법당 이야기 • 법당,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현준 · 74
에세이 보살불교 • 아픈이들의 법약, 약왕보살 / 일지 · 32

칼라화보
얼과 문화 / 김효형 · 김성철 · 53
양양 진전사터와 선림원터 / 김희균 · 김성철 · 54

포교의 현장 •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춘희 · 80
수행길의 이런 도반 • 허공을 닮은 허공 스님 / 효림 · 88
포교당 일기 • 무녀가 된 ‘귀여운 여인’ / 원욱 · 91
한국 밖의 한국불교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 씨 / 장용철 · 48
만나고 싶었습니다 • 화엄 40년 회고전 연 김보현 화백 / 이윤수 · 84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 현관문 자물쇠 보수기 / 지묵 · 94
환생의 나라, 티벳 • 피에 젖는 신들의 땅 라싸 / 김선정 · 96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 • 한국불교 재건에 나선 ‘쇼아마자’ / 홍윤기 · 100
말씀과 함께 • 무상은 기쁨과 희망 / 홍미경 · 104
독자기고 • 참선수행과 호흡수련에 관하여 / 김대진 · 106
페사지를 찾아서 • 원주 흥법사터 / 김상영 · 최태선 · 110
불교와 민속 • 판소리 ‘심청가’에 나타난 윤회사상 / 김종대 · 116
건강 • 중년 남성과 심근경색 / 혜월 · 118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안희경 / 이숙자 · 119
만화/불가일화 • 이적의 사리와 건초사 / 윤승운 · 122

●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이중표 교수의 ‘불교방송 교리강좌’ 단행본으로 출간

발행처 도서출판 대원정사
전화번호 (02) 752-7047, 754-1614

고은 불교 대하소설

내려가노라면

수미산

〈 55 〉



혹암의 산길을 내려온 두사람에게는 금강산이란 말조차…

천 년도 더 넘게 같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무슨 쳇줄처럼 이어오고 있다. 진부하다면 진부하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은 진부하다고 해서 입사리 없어지지도 않는 동안 멀리 깜박이는 불빛과도 같이 때가 되면 되살아나고는 하였다.

그러므로 오래된 술, 오래된 벗, 오래된 헌 책과 함께 오래된 한 마디 말의 그 진부함이 도리어 다른 시대에는 싱그러운 것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이 금강산 아래의 이 골짝 저 골짝들의 공간을 그어 갔다. 그렇지만 그 공간 어느 곳도 금 그어진 데가 없이 곽 저물어갔다.

"좀 있으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개골산(皆骨山)에는 헛디디어 죽은 귀신들이 골짝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하지 않던가. 아무튼 재촉해 보세나."

그들은 온 정신을 단전(丹田)에다 두는 따위의 수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에 직면한 어둠 속에서 온통 발바닥에 그 정신을 집중시켜 한걸음씩 디디어 내려갔다.

수월의 짐작이 워낙 맞아 떨어졌다. 사람중에는 길눈이 밝은 사람도 있다. 수월이 표훈사 언저리로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은 것은 다행이었다.

"귀에 익은 물소리로군."

과연 고개 하나를 어렵사리 넘자 그 어둠 가운데서 물소리가 어느 물소리도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물소리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그럴진대 물도 정진하는 물이 있는지 모른다. 잔잔한 물은 잔잔한 공부를 하고 폭포는 폭포의 돈수(頓修)로 공부를 다그치는 것이라면 이 표훈사 언저리의 물소리는 한동안의 용맹정진과는 달리 두고 두고 우렁차게 하는 공부와도 같았다.

"향심(香心) 일세."

"무엇이 말입니까?"

"물소리."

"물소리를 소리라 하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귀라고 되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시러베아들놈이 있어야 심심치 않겠지."

그때 과현이 돌부리에 발등을 다쳤다.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였다.

"많이 아프신가?"

"제법입니다."

"내가 들쳐 업어야겠네."

"이 밤중에 누가 누구를 업고 누가 누구의 등에 업힙니까? 그런 일은 도깨비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과현화상! 그대가 이제는 구업(口業)이 한창이네."

"수월스님을 따라가기에는 천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 받는 동안 그것이 대화요법(對話療法)의 효험이라도 되었던지 과현의 다리가 괴질 수 있었다.

그들이 내려온 금강산의 어디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캄캄한 밤이면 이 산중의 골짝과 바람따라 사람이 있어서 그 할아의 불빛들이 자랑이던 시절이 갔던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흑암(黑巖)의 산중이야말로 비로봉 비로자나불의 법신(法身)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 그냥 내려가보세."

그들이 내려가다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미 표훈사 언저리에 대한 짐작이 붙가능해진 관이어서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앞을 가로막는 그것에 다가갔다.

틀림없이 돌담이었다. 그 돌담을 손으로 짚어가며 내려가다가 문을 만났다. 그 문을 열었다. 돈짝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눈발이 마구 퍼붓기 시작하였다. 어둠 속이므로 눈이 환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었다.

"암자인듯 합니다."

"들어가세."

두사람은 마치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듯이 들어갔다. 이미에 부딛치는 것이 있었다. 아픈 이마를 숙여서 더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눈을 맞지 않을 수 있었다.

다행히 하늘을 가리는 곳에 이르러 눈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우선 내려오는 동안 무척 지쳤고 배속이 비어서 빈 몸이 오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이라도 한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과현의 입에서 이런 말이나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제까지의 편력승(遍歷僧)다운 정신의 경지가 다 거덜난 것인가. 지친 몸이고 배고픈 몸이고 추운 몸이면 거기에서 정신이 먼저 나가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술 한잔 생각이 난 것인가.

그렇다면 과현은 그동안 무욕도에서 제법 공부랍시고 한 처지였건만 그 이전의 뼛사공에 지나지 않고 포구에 닿은 배에서 내린 술꾼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하였다. 지난 날의 일이 어찌 지난 일이겠는가. 그것은 조금만 과보만 거기에 묻혀있는 현실로서의 오늘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일이나 수천년전의 일이나 그것이 한갖 과거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가.

원시경전 가운데 많은 본생담(本生譚)들이 없어진 것은 없어진대로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있는 까닭은 바로 지난날의 행적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행위가 오늘의 원인으로써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나도 한잔 생각이 난다마는."

그들은 그런 술 생각이라도 일치해야 그 밤중의 시련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과현은 무욕도의 인탐스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떠올랐다. 인담은 서하문집을 통해서 임춘(林椿)을 수행의 한 본보기로까지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임춘의 '국순전(麴醇傳) 이야기'도 술생각과 관련되어 떠올랐다.

국순이라는 뜻은 '진한 누룩'이다. 바로 이런 뜻이 바로 국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었으므로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이기도 하였다.

관상가 산도(山濤)가 나타나 그런 술꾼이 노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과연 국순은 공경대부(公卿大夫)는 물론이거니와 저잣거리 건달이나 누구네 헛간 머슴 그리고 북녘 오랑캐, 천한 목동에 이르기까지 두루 그와의 수작에 흠뻑 젖어있었던 것이다.

고려 천하에 이만한 인걸이 나는 일이야말로 큰 사건일 터였다. 관상가가 말하였다. "어느 여인이 이토록 빼어난 기란아(麒麟兒)를 낳았을고" 그러나 나라와 백성을 그르칠 일도 반드시 이 사람의 몫이로다"라고 하였다.

그 뒤 국순은 정부에서 손님접대의 버슬을 맡아서 아무리 속이 갈거나 좁은 타국 사람도 그에게 마음 속의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으니 그는 왕실의 첩보원 노릇까지 겸할 수 있었다.

그런 왕실의 지나친 신뢰는 이 사람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끝내는 왕이나 왕족이 그와의 술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왕은 끝내 민심을 멀리했다가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런 사연으로 된 가전체(假傳體) 소설 '국순전'까지 떠올리는 것으로 과현은 그 밤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정작 술보다 술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그 밤을 보내는 힘이 된 것인가.

날이 새자마자 이미 발이 빠지는 눈위를 걸어서 금강산 밑의 산촌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간밤 눈발을 막아줄 처마는 암자의 그것도 아니었다. 한 산막 폐가였

"그냥 가세."

라고 수월이 앞장섰다. 굳이 가난한 아침 시래기죽을 열치없는 나그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인심을 바라는 것도 구차하거니와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난 그곳 산촌의 사람의 배고픔이란 또한 얼마나 허전하기이를 데 없음이겠는가.

아무튼 살아있는 목숨에 잠겨있는 정신의 높이도 헤아리기 힘든 노릇이거니와 그 목숨에게 필요한 먹거리의 절실한 바는 차라리 정신에 견주어질 것이 못되었다.

계담음이란 배고픔인가
삼계대도사 (三界大導師)
얼마나 배고프신가

배고픔뿐아니라 온몸이 첫눈맞은 동태처럼 뻣뻣하였다. "우리 춤이나 추세" 그들이 억지 춘향으로 쌍거지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영감이 달려왔다

사람도 그에게 마음 속의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으니 그는 왕실의 첩보원 노릇까지 겸할 수 있었다.

그런 왕실의 지나친 신뢰는 이 사람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끝내는 왕이나 왕족이 그와의 술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왕은 끝내 민심을 멀리했다가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런 사연으로 된 가전체(假傳體) 소설 '국순전'까지 떠올리는 것으로 과현은 그 밤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정작 술보다 술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그 밤을 보내는 힘이 된 것인가.

날이 새자마자 이미 발이 빠지는 눈위를 걸어서 금강산 밑의 산촌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간밤 눈발을 막아줄 처마는 암자의 그것도 아니었다. 한 산막 폐가였

이것은 수월의 눈에 차가운 눈물 몇방울이 그렁그렁 아롱진 뒤에 신음하듯 읊어본 소리였다. 수월도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것을 부자에 빗댄 것이다.

배 고픈 것 뿐 아니라 온몸이 마치 첫눈 맞은 강원도 덕장 동태와도 같이 뻣뻣하였다.

수월이 하다못해 과현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춤이나 추세."

"네?"

"춤말이네."

"춤이라면 굶주린 귀신춤이 되겠습니다."

"그도 좋지 않는가."

그들은 산속 어귀를 지나면서 거이 억지 춘향격으로 서로 손을 맞잡다가 떼어놓다가 하며 거지춤을 추고 있었다.

조선후기 장시(場市) 가녘이나 마을어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광경이 쌍거지의 춤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춤을 두사람이 추고 있었다.

그때 산촌에서 한 영감이 입김을 하얗게 토하며 달려왔다.

"당신들 빈 속이지요?"

"아닙니다."

라고 수월이 시치미를 뗐다.

"흠! 중이 거짓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과계 아니오?"

그 영감이 말하였다. "갑시다. 우리 집에는 잔치상 하나가 차려져 있으니"

이렇게 말은 넉넉하지만 결코 그 영감의 사정도 딱할 지경이었다. 과현이 그 영감을 사양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갈길이 바쁩니다."

그림 · 조향숙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2월 23일(토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眞 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기도법회
귀의 삼보하옵시고
본 약수암에서는 미얀마(버마)에서 모셔온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이신 황금광명사리정골사리, 골(骨)사리, 혈(血)사리, 근육사리 머리카락사리 친견법회 및 기도법회를 개최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가피를 입으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황금광명사리는 국내 처음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약수암 주지 합장
친견법회 및 기도 입제일
1995년 12월 2일(양력)
경북 영주시 영주2동 118-1번지 약수암
전화 0572-635-6331

탈종공고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74-9
■사찰명: 대 원 암
■교 임: 양 영 옥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으므로 본종을 탈퇴합니다.
1995. 12. 1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2천 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 우인보씨


◇ 김영민씨


◇ 박영동씨


◇ 이학송씨

불교사상연구회 교법사 세미나 '청소년 비행 원인과 실태'

"겉도는 청소년 부처님 품으로"

자원봉사 학습프로 개발 전인교육 유도
수련원 건립·가족법회 활성화 대책필요

현직 종립 중·고등학교 교법사들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자원봉사 학습프로그램 채택,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부모의 역할 이해 등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다.

불교사상연구회(회장 연암스님)가 지난 3일 수원 대승원에서 '청소년 문제와 불교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문제에 접근,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우인보교법사(동대부중)는 흡연과 음주 가출 학교중퇴 폭력 성문제 약물남용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예방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법사는 청소년 비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영민씨(AVAN KOREA 대표)는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자원봉사'에 대해 "자원봉사 학습은 관리교육의 훌륭한 관리강화를 위한 도덕교육이 아니라 자발성을 실현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삶의 현장이며 만남의 장소"라고 정의했다. 또 "청소년 문제의 근본원인은 기성세대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김씨는 21세기를 향하는 청소년의 '정서교육'과 '인간성을 키우는 교육'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로 자원봉사 학습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씨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제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문제의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문제예방에 국한된 자원봉사가 아닌 더 나아가 전인격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학습을 채택하는 것이 불교계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가정,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통설이 일반된 사실이라고 전제한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인간은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모된 이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교법사는 "고·집·멸·도 사성제에 나타난 가르침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곱십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관과 불교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학송, 교법사(광동여고)는 '열살된 사미도 스승이 될 수 있다' 등 여러 경전에 나타난 청소년관을 소개하고, 사찰의 학생부와 청년부의 조직결성, 종립학교 투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주간 설정,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법회 마련 등이 작금의 불교계가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연수교육 잇따라

'청소년의 해' 앞두고 역량강화

지난 2일과 3일 개최된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의 '제16회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로 지도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12월에는 불자교사들의 참여의 장이 더욱 다양하게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오는 9일, 10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한국불교 청소년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 사찰과 학생법회 지도교사,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 포교현장의 문제점과 방향, 전국규모의 청소년 조직에 대한 논의 등 토론도 갖는다.

또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26일부터 27일 종단 산하 자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를 월곡동 총인원에서 연다. '효율적인 자성동이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리와 교법에 입각, 지도자의 역량을 고취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도 오는 30일부터 2박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20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마련한다. '깨어있는 교육환경 세계로 달리는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어린이 포교 10년을 결산하는 마당으로 마련해 기대를 모은다.

이어 내년 1월 10일부터는(3박4일의 일정) 전국 초중고교 교사 2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불교연수회'가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 주최로 경주일대에서 개최된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쾌락의 장 *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도 없다

이 향 원



이리후 건강칼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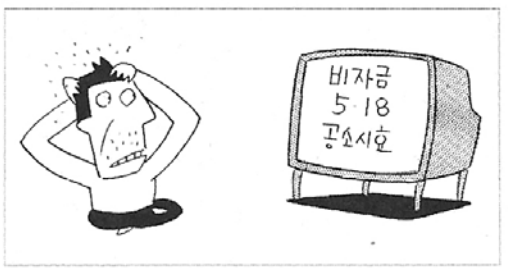
분노

"지도자 탐욕에 국민 감정혼란·건강 해쳐"

요즈음 신문을 보기가 민망하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부터 시작한 사회적 회오리는 이제 5·18특별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본다.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사건이란 점에서 개인들에게 현저한 건강상의 위해를 준다.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형이 깨어지는 상태로서, 이런 분노상태의 지속은 정신과 신체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싸울 때 혈압이 오르는 것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이 싸움을 계기로 혈전증이나 뇌혈관 파열이라는 극한 상태를 겪게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감정이 신체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희로애락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을 유형화하여 몇가지로 모아보려는 시도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부단히 노력되어 왔으나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이는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 주관적으로 다양하다는 뜻도 된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유기체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의 기능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들 변화는 물가연동제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유기체를 가장 평온한 상태에 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상태가 오래 풀리지 않고 지탱할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곧바로 위험신호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의 총합에 따라 질병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다.

분노와 같은 감정의 반응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성 표현이긴 하지만 자율신경계에서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혈압을 높이고 불안을 가중시키며 근육긴장과 빈맥 발한 등의 독특한 증상을 일으킨다. 내분비계에는 코리코스테트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 전해질의 불균형과 면역계의 조절능력을 떨어뜨린다.

"오천억요?..." 이런 말을 의식속에 담자면 누구나 분노를 일으킨다. 분노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신체적인 장애를 자초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행의 당사자는 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한 가해자도 된다.

'탐욕이 근심을 낳고 탐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이를 벗어나 탐욕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옳은 말씀이지만 나만 벗어난다고 될 일만은 아니다. 가해자가 있는 한 그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분노를 삭 이는 또다른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새로나온 책.....

▲탑과 사방불(김왕직 지음)=동서남북 네곳에 불상을 모시는 사방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 각 방향에 보신 부처님의 의미를 미륵사지 석탑, 법주사 팔상전등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사방불 유적연구를 통해 밝혔다.



〈삼선포교원, 법보시〉

▲대일경 강의(권영택 편저)=대일경 각 품에 대한 해설 및 주석서를 소개했다. 대일경은 중기밀교의 세간적인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경전과는 달리,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성불의 지름길에 대해서 밝힌 경전. 밀교의 교리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인행, 1만원〉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마하시 지음)=위빠사나 수행법의 목적, 수련방법, 수행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 등을 설명했다. 지은이는 미얀마의 사사나 에익타 명상센터의 지도자. 부록으로 '염처경'에서 설한 명상법을 실었다. 정동하 옮김.〈경서원, 3천5백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다(김신중 지음)=올해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첫번째 시집. 역동적인 불의 이미지를 살려 관념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무량수전 서' '업보' 등 56편 수록. 〈여민, 4천원〉

저자와의 만남 '불교의 이해와 실천' 펴낸 이중표 교수

"삼보귀의는 자유·평화 실천행"

아함경 기초로 불교 근본교리 밝혀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귀의하는 것



◇이중표 교수

〈불교의 이해와 실천1〉, 다소 딱딱한 듯 하면서도 다시금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책이 나왔다. (대원정사 펴냄) 저자는 〈아함의 중도체계〉를 통해 팔정도와 연기설을 실천적 중도행과 사상이론으로서의 중도설로 체계화한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

지난 9월 1일부터 불교방송에 책제목과 같은 타이틀로 방송됐던 교리강좌를 묶은 이 책은 지금까지의 교리·입문서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발견된다.

삼보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불보 곧 부처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참나'가 부처라고 강조한다. 즉,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거짓된 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에서 참나로 돌아가 살아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힌다. 나아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자유 평등 평화의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한다.

"불보는 참나를 찾아 얻어지는 자유, 법보는 연기법에 따라 우리는 한몸이라는 평등, 승보는 계율에 의해 이어지는 승가공동체의 평화이며, 부처님이 설한 팔만사천 법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 가르침을 요즘의 언어와 사고체계에 맞게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교가 현대사회의 제반문제, 즉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경쟁의 심화와 반목 등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환경오염·인간성 상실 시대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저절로 해결"

또 불교는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귀의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라며 신앙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제안한다.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자는 뜻입니다. 불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듯, 마음속에 부처님이 발현하기를 발원하는 갈앙(渴仰)이라는 말이 더욱 적확한 표현입니다. 신앙이란 말에는 위와 아래가 나뉘어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책이 새로운 불교이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교의 목적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것을 아함경에서 찾는다. "혼란한 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정신도 근본불교와 접목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책에서도 불교의 근본 뿌리로서의 아함경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성운 기자



◇"혼란했던 인도사회의 사상·철학을 불교가 정리했듯이 시대에도 불교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월주스님 '보살사상 경구선집' 이달중 발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 가운데서 보살사상의 내용이 담긴 경구들을 가려뽑아 해설을 덧붙인 〈보살사상 경구선집〉을 12월중 펴낸다.

월주스님은 "보살행이란 진리를 현실속에서 구현시키는 유일하고 위대한 불자의 임무"라며 "이땅에 보살행이 올바로 전개되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겨레의 선도적 구심점 뿐아니라 그 위상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월주스님 화갑을 맞아 펴내려했던 화갑기념 논총과 문집은 내년 3월 출간할 예정이다.

조계종 단일계단 '행자교육 한글교재' 펴내

조계종 단일계단은 최근 찬승공덕경(讚僧功德經)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교계율의, 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를 1권으로 묶어 행자교육용 한글교재로 펴냈다.

찬승공덕경은 아함경을 바탕으로 승보를 찬탄하고 공덕을 쌓아 미륵불회상에서 만나기를 발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교육원 상의 현황과 건립시기, 양식적 특성을 전남대 박물관팀의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종교철학·박광서 외·정토)=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개설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강좌를 묶은 문명비평서.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상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불교사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감로탱(예술·강우방 김승희·예경산업사)=국내및 일본 프랑스에 소장된 50여점의 감로탱을 318컷의 컬러도판에 담아 감로탱의 발생 배경, 미술사적 특징, 감로탱에 담겨진 정신세계 등을 조망했다.

▶한국의 석조미술(예술·진홍섭·문예출판사)=돌을 재료로 조성돼 예배의 대상과 예술품으로 남겨진 석물에 대한 개괄과 석탑 석불 부도 등의 조성시기 표현양식 신앙·사상적 의미를 363컷의 도판을 곁들여 설명했다.

'신라선종 연구' '운주사' '감로탱' 등
불서 7종 문체부 추천도서 선정

〈신라선종의 연구〉를 비롯한 7종의 불서가 제28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문체부 추천도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신간도서 가운데 △민족문화 개발과 선양에 기여하고 △학문·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도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이 탁월한 도서 및 편집·인쇄·장정이 뛰어난 도서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과 해외문화원 청소년관련단체에 배포한다.

추천불서는 다음과 같다.(추천분야·저자·출판사)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역사·김문길·혜안)=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의 탁월한 문화를 부러워하여 일으킨 '문화약탈전쟁'이라는 견해를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와 고문헌의 기록을 예로 들어 밝혔다.

▶인도사(역사·조길태·민음사)=기원전 3000년 인더스문명의 발생부터 2차대전 이후 인도공화국의 탄생까지의 인도역사를 다룬 최초의 체계적인 인도통사. 불교의 출현, 불교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신라선종의 연구(종교철학·성본·민족사)='신라선종과 구참설(鉤玄說)' '정중무상선사 연구' '신라선종의 제문제' 등의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 선이 처음 전래된 신라시기 선종의 여러 문제점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운주사(종교철학·이태호외·대원사)=천불천탑으로 알려진 화순 운주사의 석탑과 불상을 간략히 법어로 피력했다.

다이아몬드 언덕에 가을색이 아름다운 이날 프로비던스 선센타에 모인 대중들은 행원스님의 전법 노정에 더욱 큰 인연들이 깃들어 온세계가 불광으로 장엄되길 기원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85년부터 4년 주기로 세계일화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세계의 불자들이 수덕사 도량을 가득 채우고 세계일화의 법향을 드리우는 이 법회는 만공스님의 세계일화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리다.

스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법석이 마련 됐다. 제자들이 전법의 마당을 넓히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지구촌의 생명들이 모두 경건한 합장을 하는 한 스님의 법석은 먼지가 쌓일 틈이 없는 것이다.

전법을 받고 기뻐하는 3명의 선사들을 보며 행원스님은 문득 85년도 가을에 중국 북경 시내의 고찰 법원사에서 만났던 전인(傳印)스님 생각이 났다.

그 고색창연한 절에서 행원스님은 전인스님에게 물었었다.

"스님, 이 절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데 어느 부처님이 진불(眞佛) 입니까."

"부처가 없는 곳도 급히 지나가고(無佛處 急須走過)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마십시요(有佛處不可停留)."

정작 부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새로 태어난 제자들도 이미 부처의 산물인 〈만화 붓다〉. 그것은 우리를, 만화라고 하는 대중에게 가장 친근한 형식을 통해 이른바 붓다시대의 가장 깊숙한 지점까지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붓다라는 한 인격체를 우리 곁으로 불러낸 위대한 생명 찬가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아간 혹은 죽어간, 붓다를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의 힘겨움과 슬픔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그야말로 입술을 깨무는 아픔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항시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큼이나 반갑고 또한 감동적이다. 더욱이 그것이 여린 향내를 주변에 끼치다 역사의 물급이를 따라 가뭇없이 스러져간 꽃이파리 같은 어떤 인간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저절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그 자취를 좇아 하염없이 걷게 되리라.

명사추천 불서 100선

데스카의 '만화 붓다'



성 낙 주
(소설가)

여기, 절대 무화(無化)의 생명계에 참생명의 씨앗을 뿌리고간 한 인간이 있다. 훗날 붓다가 된 그의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고, 한 작은 나라의 왕자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은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어쭙잖게도 그의 생애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꿈꾸기 시작한 80년대 초였다. 나는 그의 육성을 듣고 싶었고,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었다.

내 작업은 일찌감치 신화의 잡초더미에서 그를 구출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다. 왜냐하면 소설의 세계에서는 신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이겠기 때문이었다. 국내외의 많은 책들이 내 책상머리에 쌓여 갔다. 내가 찾는 것은 신격으로서의 붓다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붓다였다. 헌데 그를 다룬 것의 모든 전기의 숲에선 온통 전설과 비약만이 무성할 뿐, 정작 그의 살아 있는 숨소리는 잘 들리질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정신을

"대중에 친근한 만화형식 빌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부처님"

담고 있거나 젊은 세대를 위한 붓다 전기가 드물었다. 대부분 팔상록류의 설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연대기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가 다만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경전 속에 갇혀 잠을 자는 거인 같았다. (그 과정에서 〈고증불타전〉이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불타의 세계〉 등은 커다란 위안과 도움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던 중 나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90년대 초, 내 앞에 홀연히 나타난 여덟 권짜리 책 한 질, 그것은 데스카 오사무라는 일본 만화가의 〈만화 붓다〉였다. 도대체 붓다라는 거룩한 인격을 한낱 만화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첫장을 넘기면서부터 나는 그 아기자기하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 속으로 흠뻑 빨려들어 갔다. 그리고 데스카가 새롭게 창조해 낸 인간 군상의 밀림 속에서 길잃은 짐승처럼 헤매어 다녔다.

〈만화 붓다〉는 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다. 싯다르타라는 어린 별이 어떻게 우주의 중심인 태양(붓다)으로 자리잡았는지, 아울러 그 태양을 축으로 하여 다른 무수한 인간 별들은 어떠한 인연으로 생성하고 소멸되어 가는지를, 데스카는 뜨거운 인간애와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해 놓고 있었다.

데스카의 반짝이는 상상력과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전법의 현장으로 달려갈 것을 행원스님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늘어나는 제자들. 늘어나는 선원과 신도들. 그것은 행원스님이 또다시 전법의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였다. 아직 스님이 가서 부처님법을 전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곳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가야할 곳, 반드시 가서 법석을 펴야할 곳이 있다.

그곳은 다름아닌 한반도의 북쪽 땅이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공산국가를 다 가봤으나 오직 한 곳 가지 못한 북녘하늘 아래에 행원스님은 주장자를 높이 세우고 싶은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부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리운 고향땅 생각만해도 가슴 아픈 고향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찬란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행원스님에게는 무엇보다 큰 고통이다.

바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원스님은 전법의 주장자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게했겠나	서 암	등 지
3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4	인도불적 답사기	호 진	불교시대사
5	선의 세계	고형곤	운주사
6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8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영한	전원문화사
9	방한암 선사	김호성	민족사
10	보문품 강화	법 련	관 음

구입문의:(02)737-0695

30개국 125선원에 '전법 주장자'

숭산 스님 ⑪ 끝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11>

지구촌 전법이야기

세계 불자 4년마다 '세계일화' 대회
美 홍법원 평화의 탑 준공 법석 장엄



◇1992년 10월 10일 프로비덴스 선센타에서는 평화의 탑 준공식과 선사 3명을 배출하는 전법식이 열렸다.

"지구상에 얼어붙은 마음 녹일 곳 너무 많아"

1992년 10월 10일.

미국 프로비덴스 컴벌랜드 다이아몬드 언덕에는 화사한 햇살이 불광(佛光)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아침나절부터 13만평의 대지 가운데 우뚝선 평화의 탑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2년만에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탑의 준공식을 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재미 홍법원 프로비데스 선센타 개원 20주년 기념법회도 있었다. 거기다 숭산행원스님의 제자로는 처음으로 3명의 선사가 태어나는 날이기도 했던 것이다.

행원스님은 미국땅에 포교의 당간을 세운날로부터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홍콩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달려야 했던 전법의 나날들이 쏜살처럼 물처럼 흘러 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있었다. 그동안 스님의 전법 당간지주가 선 나라는 30여 곳이나 됐고 선원은 1백25개소가 문을 열었다. 각국의 제자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짓일만큼 의미가 없었다. 그저 누가 물으면 "수만명이 되겠지요"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0시가 되자 평화의 탑 준공식이 바로 시작됐다. 각국의 제자들과 한국의 스님들이 참석했고 캄보디아의 고사난다등 불교지도자들도 대거 동참해 대규모 야외법석을 장엄했다.

다시 웅장스런 법석은 엄숙한 전법의 법석으로 옮겨졌다. 푸른 잔디밭에 마련된 전법식장에는 1천여 사부대중이 정좌하고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행원스님의 이방인제자 3명의 선사가 탄생하는 순간이 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삭발제자가 된 사람은 25명이나 되지만 오늘 전법식을 받는 3명의 제자는 선사란 법계를 잇는 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어떤 찌꺼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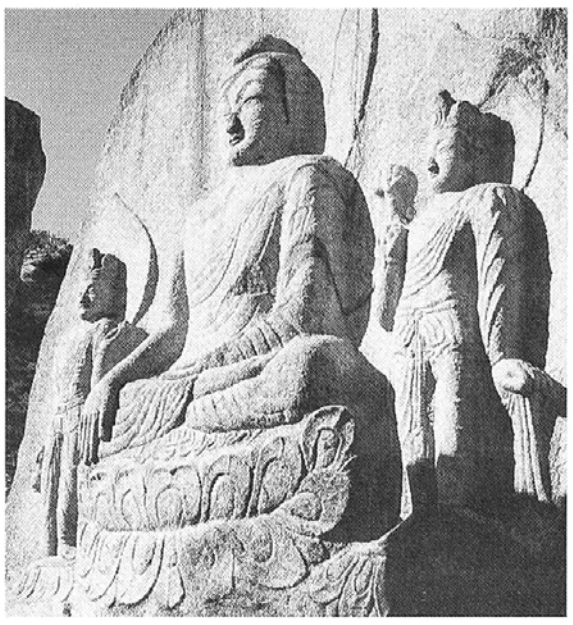
"나는 머리도 있고 발도 있다"

이렇게 시작된 문답에서 행원스님의 간을 도려내고 심장을 들춰낸 3명의 제자는 10년이 넘게 닦아 온 자신들의 마음자리를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가을날 잎이 다 떨어지면 금바람이 불어서 나무의 본체가 드러난다. 내가 처음 세탁소에서 일하는 스승님을 만났을때 금바람이 불었다…."

법을 이어받은 성해보문(性海普門) 법사의 법문을 듣는 1천여 사부대중들은 사뭇 진지했다. 무등수봉 법사와 법음성향법사도 전법의 기







◇경주남산의 석불사진 1백50점이 소개되는 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사진은 남산 보리사의 석불과 칠불암의 석불, 냉골의 석불이다(좌로부터).

경주남산 부처님 '서울 나들이'

이근후 박사 석불사진전 '…구원의 미소여' 14~20일 세종문화회관



◇이근후씨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서명·비디오 상영도

경주 남산의 부처님들이 서울로 겨울나들이를 온다.

경부고속철 경주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로 온 남산의 부처님들은 오는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박사(이화여대교수)가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를 주제로 경주 남산 석불사진전을 마련한다.

이 전시는 이박사가 올해 회갑을 맞아 잔치와 논문봉정등의 행사를 마다하고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석불문화연구회' 활동을 해 온 이박사는 이 전시를 위해 이미 5년전부터 적금을 부어 왔으며 자녀들도 적잖은 후원금을 냈다는 뒷얘기도 그의 '외도(外道)'이자 '중간회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대목이다.

10여년간 남산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그곳의 부처님들과 대화를 해 온 이박사는 이번 전시에 1백50여장의 사진작품을 내놓는다.

"코를 잃어버린 부처님, 목이 잘린 부처님에서 감실에 홀로 앉아 세상을 굽어 보는 부처님까지 다양한 부처님들이 주는 인상은 현대인의 일그러진 삶을 고즈넉히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들 정신적 귀의처가 어디인가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현대인의 정신적 귀의처가 어디인지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해마다 네팔의 산간벽지로 의료봉사를 떠나기도하는 이박사의 석불에 대한 탐구도 결국 현대인의 정신적 귀의처에 대한 해답찾기 행로였다.

"한갓진 산비탈에 천년의 미소로 앉아 계시는 부처님들을 대할 때마다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남산골의 부처님들은 문화재적 가치나 미술사적 가치 이전에 인간의 정신을 보듬는 자애로움으로 우리들에게 침묵의 감로법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뜨겁게 달아오른 경부고속철의 경주 통과 문제도 이박사의 전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고속철이 경주를 통과할 경우 그 자애로운 법문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시회를 통해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시장에서는 고속철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서명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남산의 석불문화에 대한 비디오 영상도 계속 상영된다. 또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를 준비된 종이에 적어 주는 관람객에게는 이박사가 이 전시회와 때맞춰 펴내는 수필집 〈돌부처〉(여시아문 펴냄)을 기증할 계획이다.

"전시회 일정을 잡고도 경주를 여러번 찾아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주에도 고속철의 통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주인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문화적 긍지가 적다는 것과 문화재로 인한 개발저하가 주는 현실적인 불편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년고도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의 개발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후원하는 이 전시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임연태 기자

문화재 소식

석굴암등 '세계문화유산' 선포

해인사(주지 지관)와 불국사(주지 설조)는 문화재관리국과 함께 오는 7,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석굴암(국보 24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경판고(국보 32·52호), 종묘(사적 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해 국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두 사찰과 문화재관리국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유적주변에 내걸고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본부와 파리문화원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내년 초에 열 예정이다.

국보 미륵사서탑 붕괴위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탑(600~641년)인 전북 익산시 미륵사터 서탑(국보 11호)이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김삼룡(전 원광대 총장)교수는 지난달 24일 "미륵사 서탑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가 심하게 부식되면서 탑석과 콘크리트가 분리돼 붕괴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또 "탑을 지탱해 주고 있는 콘크리트가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 탑 전체에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탑석 틈이 얼었다 녹을 경우 붕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전·현직 문화재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미륵사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발굴현장에서 회의를 갖고 미륵사 서탑 보존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이후 3~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마쳤으나 '현상태로의 보존'과 '해체 복원'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근 부분보수만 실시키로 했다.

분황사 추가발굴예산 신청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초기의 사찰인 분황사 5차년도 발굴조사에서 강당지와 회랑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추가발굴을 위한 예산 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했다.

올해 분황사지 발굴작업을 통해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기와 토기류 등 2백여점의 유물을 찾아냈던 문화재연구소측은 가장 중요한 유적인 강당지와 동서회랑을 찾기위해 2~3년간 추가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몽고국보 내년 1월 서울 전시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몽고 국보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불상류 11점을 비롯, 조각류, 회화류, 서적류, 의상장신구류, 생활용품류, 무기류 등 몽고의 전통적인 문화재 2백26점이 전시되고 미술관앞에는 몽고의 전통가옥인 겔(GER)이 한 채 설치된다.

어린이 문화재사랑 그림으로 본다

중앙박물관 9일까지 전시

서울·경기지역 국민학생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어린이문화재실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중앙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를 모델로 실기대회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권은주양(선곡국교 5)의 석가모니불과 사천왕을 부조한 문화재를 그린 박연경양(명원국교 2)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문화재 실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권은주양의 그림 '석가모니불'.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윤이상씨 추모음악회 서울·독일서 열려

육필악보·사진 전시도… 교계 '불교음악 발표무대 마련해야'

지난 11월3일 독일에서 타계한 윤이상씨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독일과 한국에서 잇따라 열렸다.

주한 독일문화원은 지난 11월28일~12월2일까지 남산의 독일문화원에서 윤씨의 음악과 생애를 조명한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기간중에는 윤이상씨의 육필악보와 관련자료, 사진등도 전시됐다.

또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는 지난 11월 26일 '그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티나'(83년작)등이 연주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번의 두 추모공연을 계기로 교계에서는 윤이상씨가 남긴 불교를 주제로한 음악들도 불교계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소개하는 무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49재 21일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

故 윤이상씨의 49재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종단협이 후원하는 이번 49재에는 윤이상선생 가족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씨의 49재는 이날 독일 현지에서도 열린다.

'불교문예' 창간호 나와

현대불교문학회 동인지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스님)가 문예지 성격의 동인지 〈불교문예〉를 펴냈다.

연간 1회씩 발간될 〈불교문예〉 창간호에는 현대불교문학회의 고문인 오현 성우 청화 정휴스님과 정공채씨의 시와 이두스님 고은씨 등의 초대시와 동인들의 시가 실렸다.

또 올해 제정된 현대불교문학상 신인상 수상작들도 함께 수록됐으며 창간특집 평론 최종호씨의 「조지훈론」도 소개됐다.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대구 원만사합창단(단장 보현스님) 제 1회 합창발표회가 오는 6일 오후6시 대구청소년수련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또 이날 발표회에서는 원

원만사합창단 6일 첫 발표회

'삼신불찬' 등 찬불가 공연… 대구청소년수련관서

93년 창단, 50여명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원만사합창단은 이번 발표회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삼신불찬' 등 찬불가를 비롯 '사랑이여' '신아리랑'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제곡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만사 유치원생들과 주운숙씨가 특별출연해 '어른들은 몰라요' '심청가'를 연주하는 것은 물론 방청객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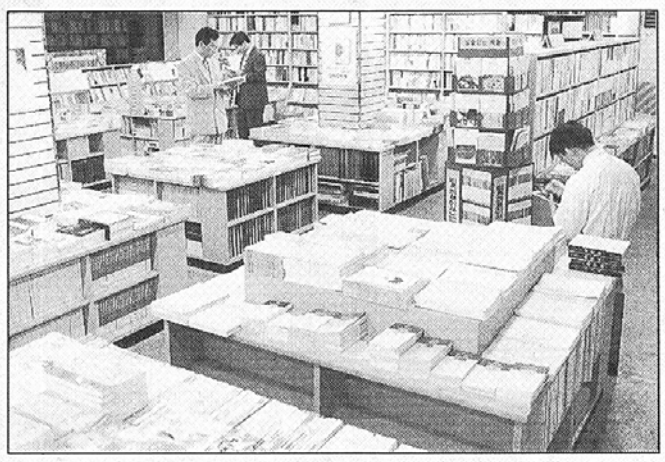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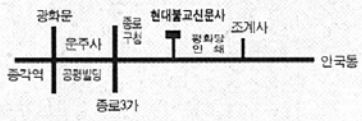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btn '부처님의 발자취…' 해외로케

75일간 인도·파키스탄 현지제작 10부

불교TV는 내년 부처님오신 날 특집으로 방영 할 특집 다큐멘터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내년 1월1일부터 75일간 인도전역 및 파키스탄 현지에서 제작한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전법, 열반에 이르는 전과정을 부처님의 일대기에 나타난 불교유적을 직접 답사하여 치밀한 고증으로 구성 할 계획.

50분 10부작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제1부 '탄생의 땅-룸비니' 2부 '잃어버린 성-카필라바스투' 3부 '구도의 길-진리를 찾아서' 4부 '깨달음의 새벽-붓다가야' 5부 '불교의 시작-사르나트' 6부 '전법의 근거지-왕사성' 7부 '대승원-기원정사' 8부 '유녀가 바친동산-바이살리' 9부 '아아, 사라쌍수-쿠시나가라' 10부 '영원한 가르침-경전결집' 등으로 기획됐다.

담당PD 신동우씨는 "지금까지의 불교유적지 프로가 관광소개차원이다"며 "경전에 근거한 철저한 고증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재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BBS '찰나회' 창립전

BBS 사진동호회 '찰나회'(회장 박시하) 창립전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는 '눈내린 산사' '합장' '해인사의 바루공양' '사천왕상' '한강유등제' 등 각 사찰과 향토마을, 해변가를 배경으로하는 사진작품 50점이 전시된다.

btn 방송시간 연장

불교TV 방송시간이 지난 1일부터 대폭 늘어났다.이번 방송시간 확대는 순환으로 편성, 방송시간을 하루 4시간 연장한 셈이다.

종전 8시간 30분이던 평일방송이 12시간 30분으로 조정되고, 12시간 30분이던 주말방송이 13시간 20분으로 늘어나 주간 총 89시간을 방송한다.

이번 방송시간 연장은 낮방송을 함으로써 방송시간편성에따른 경쟁력 강화와 불자시청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영화 '카루나' 설날 개봉

통일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가 지난달 18일 남양주 한국영화 종합촬영장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함께 만나는 장면 촬영을 끝으로 1년간의 촬영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사진〉

'카루나'는 한국영화 최초의 몽고현지 촬영, 여주인공 옥소리 삭발 등 숱한 화제를 남겼으며 특히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한민족이 하나되는 장면묘사가 탁월해 영화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루나'는 호주 오디오 락에서 돌비디지탈 녹음후 음반작업이 끝나는 12월경 시사회를 갖고 설날인 내년 2월19일 개봉 할 계획이다.

합창단 초청 설명회

불교TV는 지난달 24일 15층 강당에서 서울·경기지역 60여개 합창단장 및 합창단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TV 설명회 및 찬불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찬불가보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불교합창단 단장 및 임원들은 "찬불가보급을 위해 불교TV 프로그램제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BBS 6일 송년 대법회

불교방송은 오는 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사찰순례 참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송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법회에는 월운, 혜창, 현각, 일면, 덕신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태고종

종헌종법개정 '개혁박차'

총무원장·종회의장·사정원장 선출 지도부 개편

한국불교태고종이 전격적인 종단지도부개편과 종헌종법개정을 단행 종풍쇄신의 개혁불사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태고종은 지난달 28일 제9대 중앙종회개원 및 제71회 정기 중앙종회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갖고, 총무원장에 혜초, 종회의장 금담, 사정원장 법장스님을 새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7면〉

이같은 3부수장 선출은 종단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발판다지기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제9대 종회의원중 초선의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태고종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날 종회에서 전격 거론된 총무원장 교체문제 역시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열망이 반영돼 큰 잡음없이 단행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태고종은 새로 선출된 3부수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개혁방향을 연차적으로 수립, 완벽하게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태고종의 종단개혁은 작년 11월 69회종회를 발판으로 1년 동안 종단발전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종단개혁안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짓는 종헌종법이 통과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태고종의 개혁안 통과와 인사개혁은 거듭날 수 있는 기초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따른 태고종도들의 참여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 태고종 안팎의 견해다.

이밖에도 이번 중앙종회는 인천 용궁사 성역화사업, 종승연구 및 종전편찬,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96년도 사업계획, 44억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김중근 기자〉

내년예산 51억원 책정

총지종, 교양대 설립도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제55회 종의회를 개최, 96년도 예산 51억원을 확정했다.

불교총지종은 이번 종의회에서 교양대학설립, 사원신축불사(부산 정각사·삼밀사), 관정수계식등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종의회는 종무원 요사건립부지 매입의 건, 서울 관성사 도시계획의 건 등이 논의됐다.

통일·문화사업안 확정

태고종 한불청 총회서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는 지난달 26일 은평구 불광사에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 85주년기념 참나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문화예술대전 개최, 만해선사 추모법회 등 96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8대 회장에 도각스님을 재선임하고 수용스님, 권혁중씨를 부회장에 각각 임명했다.



인터뷰

뉴질랜드 한인불교회 박 홍 주 회장

"타향살이 불심이 위안"

매주 30분씩 불교방송 자체편집 '전파'

"오클랜드 법당건립 기금마련 동참을"

"국내에 있을때는 마음만 먹으면 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불교의 소중함을 못 느꼈었습니다. 사찰도 가까이 있고 좋으신 스님들도 뵈올 수 있는 한국생활이 그립습니다"

지난달 31일 불교방송 이사장실에서 종하스님으로부터 신행프로그램 4편이 녹음된 테잎을 증정받은 뉴질랜드 한국불교인회 박홍주회장은 뉴질랜드 한인방송 전파에 띄울 불교방송프로그램과 최초의 한국법당인 오클랜드법당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94년 3월 가정법회에 6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제는 4백여명이 공공회관을 빌려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간지 2년이 됐다는 박홍주회장은 한국교회가 여러곳 있어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한인친선도모를 하는데 비해 불교신자들은 갈데가 없었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법회였는데 불상도 없어서 어느 보살님이 도자기로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대원불교대학을 졸업한 정좌선화보살을 법사로 법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회식순은 한국과 같지만 스님법문은 테잎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불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소수민족방송에 불교방송을 일주일에 30분 자체편집하여 내보내고 있다. 또한 이달경 정묵스님과 지윤스님이 뉴질랜드에 거주키로해 본격적인 한국법당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활동하다보니 단합도 잘되고 교민회에서 가장 조직적인 단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불교회는 포교지 '월간 불교회보' 발행을 비롯해 '청소년 검도모임' '거사회 골프모임' '애기엄마들의 모임' '부녀회'등 단체별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작년 초파일때는 회원들이 직접 연등을 만들어 뉴질랜드 최초로 번화가인 퀸스트리트에서 제등행렬을 하여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박홍주회장은 "뉴질랜드 법당건립에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연락처 장태균 (02)774~7740 〈원〉

네팔 룸비니에 한국사원 첫 건립

대성 석가사 6일 요사채 기공식

통일신라양식 법당불사 16억예산 투자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 국제사원 구역내에 최초의 한국사원이 건립된다.

용성스님의 유훈 10조을 받는 도문스님 원력으로 오는 6일 기공식을 갖는 대성 석가사는 대각회의 후원으로 1차로 8천평의 부지에 요사채 1층 3백50여평을 기공한다. 요사채의 전체규모는 2층7백여평. 대성석가사불사는 앞으로 5년여동안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여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큰법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지 주민들과 불사를 하고 있는 법신스님은 "일본·베트남·태국등 불교국가들도 함께 '룸비니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성 석가사 건립불사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도문스님을 필두로 대성사 총무 무진스님, 대각사 청청스님, 한명욱 대성사 신도회 부회장, 건축을 맡은 네팔 코네코사장 등 1백여 한국불자가 동참한다.

특히 30여명의 기자단이 취재와 인도순례를 갖게 돼 시선을 끌고 있다.

지구촌 불교

장경연구소, 예불음악 인터넷 제공

아침 예불음악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상에 제공된다.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가 세계최초로 인터넷에 띄운 아침 예불음악은 종성 예불문 반야심경 등으로 구성되어 반야심경 경전해설에 삽입되어 있다.

아침 예불음악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Real Time Audio' 및 넷스케이프 등의 인터넷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경연구소 인터넷 주소는 http://sol. nuri.net/~hederein



티벳출신 여섯살 소년

중국서 판첸라마 추대

중국정부는 지난 11월29일 티베트 나구현 출신 기아인케인 노르부(6살·사진)를 11대 판첸 라마로 추대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발표는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 5월 추대한 판첸라마 게둔 초에키(6살)를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판첸라마는 달리아 라마에 이어 티베트 불교 제2인자이다. 판첸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합한 말로 '위대한 학자'란 뜻이다.

목탁소리

현대판 '비승비속'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지난달 30일은 27번째 맞는 군승들의 생일날이었다. 이날 육해공군 군승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자축연을 벌였다. 더구나 군승 초창기부터 군포교 초석을 다진 임봉준법사의 전역식까지 겹쳐 생일날을 더욱 흥겹게 했다. 어느모로 보나 군승들에게는 즐거운날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군승들에게는 즐거움만큼이나 무거운 감정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것은 열악한 군포교 현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회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군인불신에 대한 불만도 아니다. 군승들의 마음 한켠에 드리워진 어둠은 '사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군승의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군승은 분명히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는 스님이다. 종단에서도 군포교를 위해 스님을 선발하여 파견했다. 그러나 군승들은 한결같이 종단으로부터 스님으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백여명의 승려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종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종단으로부터 찬밥신세를 받고있으니 스님이나 신도들 사이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가자도 아닌 현대판 비승비속인 셈이다. 종단일부에서는 군승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라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종단은 지난 1984년 '포교를 위해 군승은 결혼을 할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군승단은 그동안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군승특별교구설치를 요구해 왔다.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승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군승들의 생일날에도 감감무소식이다.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다. 군승은 곧 그물로 비유되곤 한다. 군승의 사기가 이정도이니 황금어장은 그림의 떡이 아닐수 없다.

"종단에서 군포교하라고 하여 25년간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제 종단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엄사에서 출가하여 군포교의 소임을 마치고 산문으로 들어가려는 청정비구 임봉준법사의 넋두리 비슷한 한마디가 군승들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을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신년축하광고
■ 접수마감 : 95년 12월 16일
■ 규격 및 단가
1) 종단 : 가로 9cm×세로 17cm 기준, 25만원
2) 본사 : 가로 8.5cm×세로 6cm 기준, 15만원
3) 말사 : 가로 7cm×세로 4cm 기준, 5만원
4) 불교관련업체 : 위 규격기준, 선택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스님 비하 "해도 너무한다"

MBC 마당놀이·KBS '찬란한…'·진로 사보등 흥미위주 묘사

"시주하면 극락간다 책임지고 극락간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님인가 뭔가하는 이 중놈한테 시주하라고? 염주 목에 걸고 죽을 놈아."

MBC가 주관하는 마당놀이판과 진로그룹이 발행하는 사보,KBS가 방영중인 드라마가 불교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재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공연되고 있는 95 MBC마당놀이 옹고집전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대중 상업성에 치우쳐 스님을 백화점식 웃음거리로 등장시키고 있다. 대사내용도 '뱅땡이 중왔네' 등 비하적인 대사가 주를 이루며 특히 스님이 축지법으로 뛰어내린 장면에서는 '아이고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표현까지 쓰고있다.

더구나 이 공연을 강남 구룡사부설 극단 '신시'(대표 김상열)가 이끌고 있어 불자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최근 발행한 진로그룹의 사보 가을호에 실린 '스님들의 현명한 결정'이라는 야화는 불교훼손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수행자들을 음담패설이나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 불교와 수행자상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진로그룹 사보실측은 "필자인 한양대 국문과 김용범교수가 이조시대 홍만종이 쓴 '명엽지해'를 인용한 것" 이라며 "종교적 의미보다는 해학에 치우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근대사에 묻혀있었던 개화승 이동인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KBS-1TV의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도 스님의 생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극중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효옥은 드라마의 극적효과를 위한 가공인물로 동인스님이 아이를 갖게 한다는 내용으로까지 치달았다.(12월2일·3일 방영).

뿐만아니라 극중에서는 "중놈이 어떻게 처녀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다그치는 대목도 나온다.

'찬란한 여명'의 한 제작 관계자는 "개항사가 자칫 남성위주로 흐르는 소지가 있어 효옥은 드라마의 조화와 윤활유 역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송·공연을 통한 불교비하와 왜곡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돼왔던 문제다. 그러나 아직 교계에는 각종매체와 문화현장의 훼불을 감시할 기구가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MBC 마당놀이 '옹고집전' 은 상업성이 지나쳐 스님을 백화점식 웃음거리로 등장시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이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 방장스님을 친견, 법문을 청했다.

"변치않는 참주인공 찾아라"

해인총림 혜암 방장스님 친견법회서 사자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해인사 총림 방장)이 현대불교 애독자를 위해 큰 사자후를 토했다.

지난 25일 오후1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조계종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에서 스님은 "생멸을 거듭하는 마음은 뜬구름처럼 허망한 것"이라며 "언제나 변치않는 참 주인공을 찾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전국에서 해인사 원당암을 찾은 1백50여 불자들에게 스님은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거지죽음이나 대통령죽음이나 똑같다"며 "세간사중 욜다고 할 수 있는것은 남을 위해 사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2시간여의 법문이 끝난후 불자들은 스님과 함께 선방건립 불사현장을 돌아보는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소외계층 원호사업

서울 대불청, 9일 회향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유범)는 오는 9일 금강정사에서 '소외계층 원호사업' 회향식을 갖는다.

대불청 서울지구는 지난 10월22일 불청대회를 기점으로 원호사업을 전개, 강연회, 보육원·재활원봉사활동, 양심수 및 장기수를 위한 기금마련, 장기기증 활동과 홍보활동 등을 펼쳐왔다.

서울지구는 오는 9일 70명의 장기기증 활동보고와 함께 양심수였던 백낙기씨에게 기금 50만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49일간 활동해온 소외계층 원호사업을 회향하게 된다.

'나눔의 집' 완공

정신대할머니 보금자리 19일부터 입주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이 4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9일부터 본격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소재)은 17개의 방과 정원, 휴식공간등 편의시설과 정신대 관련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내년 3월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그동안 혜화동에 거주해 왔던 7명의 정신대 할머니와 무의탁 정신대할머니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접수중이다.

이와함께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후원회원과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다.

(02)723-0851

'불교발전강연회' 개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지난달 24일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발전 대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근일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자들도 본성을 찾기위한 참선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실업인회는 김태완(부산대 박사과정)씨외 2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출범

승가 의식개혁 추진… 상임의장에 진관스님

새로운 불교운동을 통하여 승가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불교의 대중화·사회화를 확대하여 불교중흥을 이룩한다는 취지의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이하 '승가회')가 지난 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회원 및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 4장 총 29조의 정관이 채택되고 공동의장에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도현(영암 도갑사 주지) 석담(법주사 총무)스님, 상임의장에 진관스님, 사무처장에 진육스님이 선출됐다.

선재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법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치사,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종하(불교방송 이사장)스님의 축사,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승가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불교는 종단운영의 성숙된 모습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가일층 자기변화의 노력을 경주하여 여러 난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한국사회에 올바른 개혁의 모델을 제시해 사회를 선도하는 종교로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행과 교화를 겸비하여 사회통합력을 발휘하는 불교, 생활속의 불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교를 염원하며 수행자가 존중받는 풍토조성과 승려기강을 확립, 인류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건강한 승가상을 확립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도해스님 25일 입적

월공당 도해(月空堂 道海, 부산 복천사 주지)스님이 지난달 25일 오전 7시15분 입적, 29일 범어사 지장암에서 다비식을 치뤘다.

세수 62세, 법랍 41세인 도해스님은 부산 영주암 주지, 범어사 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3년 복천사 주지로 취임하여 경내지를 확보하는 등 각종 중창불사에 힘써왔다.

'참정권 제한 산중총회법' 재론 촉구

전승련 공개질의서

전국승가대학인연합(의장 각원)은 지난달 24일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산중총회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고 "새로 제정된 산중총회법 제 4조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독주와 승단 구성원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법 제정"이라 주장하며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승련은 "비구계 수지후 5년이 경과되어야만 참정권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며, 몇몇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독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수행정진에 몰두해야 할 학인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는 마치 학인들이 종권에 관심이 있는양 매도하는 것으로, 대다수 학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찰재정 효율관리 필요"

개혁종단현황설문 '생산불교' 관심 확산

사찰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사찰재정상태는 물론 종단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 필수적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개혁종단 출범 1년을 맞아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가 전국의 스님과 재가신도 2천여명(응답 526명)을 대상으로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단의 재정확보 방안으로 '총무원의 자체 수익사업' '특별분담금 사찰의 확대와 분담금 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출범초기 내세웠던 '생산불교'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서는 '정기교육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능력을 향상시킨다'(31.2%)' '교육과 능력 전문성 등을 인사에 반영(24.8%)' '소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12.4%)'로 나타나 종무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총체적 능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종단의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종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으며 종단의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가 '시행방법 폐단을 시정하여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불교계의 사회참여 활동영역으로는 '사회복지활동' '포교활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순으로 꼽혀 개혁종단이 향후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0만 국군의 전불자화"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지난달 30일 제 27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을 비롯 스님과 육해공 군법사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 60만 국군의 전불자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 군법사는 1백여명으로 1인당 약 1만여명의 장병을 상대하고 있어 군법사의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 대장경각 보수 착수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8천3백50만원을 들여 국보 제52호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 대한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2월 6일까지 70일동안 시행되는 이번 공사에서 장경각 입구 수다라장과 뒤쪽 법보전기와 전량이 교체된다.

김장김치 보시

경불련 자비의 집

경불련 자비의 집이 개소 2주년을 맞아 무의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겨울나기' 행사를 마련했다.

자비의 집은 지난 30일 자비의 집 후원회원들이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지역 2백여가구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자비의 집은 식품업체의 협조를 받아 밀반찬 1천여통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겨울의류 1천5백벌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비의 집은 봄이 올때까지 겨울의류와 먹거리를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 주지 연수

범어사·은해사 본말사

조계종 범어사(주지 정관)와 은해사(주지 일타)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휴휴정사에서 열린 범어사 교육에서는 50여명의 말사주지 스님이 참석, '한국사회속의 종교현황(포교부장)' '종무행정 및 리더쉽(부산대 이광수교수)' '불교사회복지에 대하여(이용권씨)' 등의 특강과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은해사도 금강율원에서 60여명의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타스님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불교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필두로 설조스님, 원산스님, 태일스님 등에 의한 총 8차례의 강의가 진행됐다.

통일, 성보문화재 관리, 종단교육방침, 종무행정, 종단흐름, 사찰안보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 이번 연수회의 전체토론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불교의 역할'이라는 논제가 토의되었다.



◇범어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간 휴휴정사에서 본말사 주지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선학원과 적극대화"

조계종 법인대책위

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정우스님)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선학원의 분종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위원들로 홍보 대화 법적대응 징계등 4개 팀을 구성해 선학원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며 오는 15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원로스님 특위위원 분원장 등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선기금 1천만원 전달

불교사회봉사회, 음악회수익금 백혈병어린이 환자 등에

한국불교사회봉사회(법주 중원스님)는 지난달 29일 원효정사서 제4회 자선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불교사회봉사회는 지난 9월30일 열린 자선음악회의 수익금 1천만원을 박재연, 백승주, 윤지로, 신세연 등 백혈병 어린이환자와 심신중격결손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애나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불교학생회 운영 중·고교 '불과 4%'

포교원 조사 "청소년 포교 반성 절실"

전국 4천5백7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체의 4%인 2백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포교가 그동안 포교의 사각지대였음이 입증됐다.

이같은 사실은 포교원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위원회 조직분과(분과장 우인보)가 지난 10월16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립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의 경우 전체 2천7백26개교중 1%인 17개교, 고등학교는 1천8백53개교 중 9%인 1백59개교에만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 2백4개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서울 4, 부산 3, 광주 1, 경기도 2, 강원도 4, 경남 2, 경북 1개로 총 17개교이고, 고등학교는 서울 37, 부산 38, 대구 4, 인천 3, 광주 5, 대전 2, 경기도 6, 강원도 5, 충청남북 4, 전라남북 12, 경남 16, 제주 6으로 총 1백59개교이다.

우인보교법사는 불교학생회의 부재는 청소년 포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활동이 학교수업의 중요한 평가자료로 채택되는 5·31 교육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안을 종단 및 청소년지도자들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교 불교학생회 실태파악과 더불어 포교원은 사찰학생회의 운영상황을 오는 20일까지 최종 집계,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10일 청소년 지도자대회와 함께 전국 규모의 청소년단체를 결성, 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주에 또 경마장·골프장 건설

교계·주민 古都 훼손행정 '분노'

고속철 통과, 경마장 건설, 무분별한 공단유치 등으로 천년고도 경주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주에 또 하나의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서라벌관광개발(대표 김광택)이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범허들산 54만평 부지에 27홀 규모로(총 공사비 추정액 3백5억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주민과 대구·경주·울산소재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 외동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야랫마을인 석계1리와 2리를 비롯하여 인근의 문산리, 모화리 등의 식수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천강으로 흘러들 경우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동천강변의 율산지역 아파트주민들의 식수오염도 예상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식수오염외에도 가축의 기형아 출생, 위화감 조성, 선산의 분묘파괴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서라벌골프장은 지난 90년 6월 허가가 난 이후 수차례의 공사중단사태를 빚은 현재 진입도로공사가 마무리중인 단계이며 분묘 57기중 40여기의 이장협의가 되지 않아 본 공사는 재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주, 조선컨트리 클럽등 기존의 4개 골프장외에 또다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세수입 증대에만 급급한 일관성없는 행정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10·27법난 규명 자주성 회복"

재야단체 5·18특별법 관련 성명

불교계에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달 29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7 법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자주성 회복과 의식개혁, 청정한 교단의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을 비롯 10여개 불교단체들도 지난달 30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검사제도 실시 및 양심수 전원석방, 보안법 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내년 서울대회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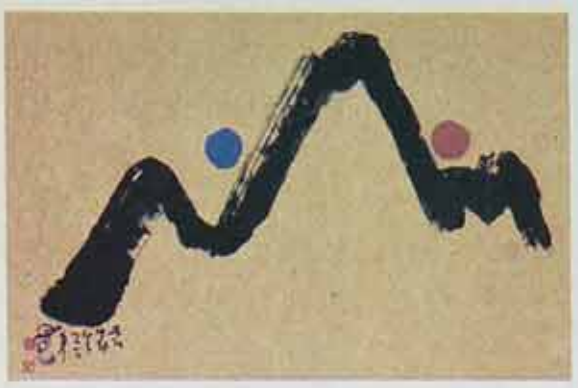
"오계파지로 세계 평화 이룩"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의 주제가 '오계파지로 세계평화와 조화를 이룩하자'로 결정됐다.

WFB는 지난달 23일 태국 방콕 아마리호텔에서 열린 52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지말라'에서 '…을 하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WFB 한국본부 박동기회장은 "서울대회를 통해 전세계불교도들의 △단일성 고취 △자비실천 △윤리회복 △자연보호 △종교간의 조화 △핵과 전쟁억지운동등을 전개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FB서울대회는 1996년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되며 40개국 1백50개 지역본부에서 6백여명의 불교지도자가 동참한다.



자비의 산

"어린 꽃들아 네 향기 높고 크니…"

—고통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엄마품에 새록새록 잠들지 못하는 꽃들아.
배고픔에 칭얼대고 무서움에 눈망울 찾아 있는 헐벗은 꽃들아.
너희들의 오늘은 겨울 영축산의 매마른 억새풀 같구나.
너희들의 내일은 허기진 곰속의 텅빈 하늘 같구나.
스산한 너희들의 하루하루를 만든 사람은 부끄러운 어른들이구나.
이 세상 이권과 저편에서 작은 욕심 큰 욕심으로 내일을 욕되게 하는 어른들이구나.
너희들의 맑은 눈빛을 잊고 사는 어른들의 탐욕이 너희들의 오늘을 배고프게 하였구나.
사람도 희망도 잊고 사는 탐욕이 큰 죄가 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남쪽 땅 영축산의 작은 절에 들려 온 너희들의 아픈 소식은 문수보살 관음보살의 울음이어라.
이 세상은 본래 깨끗한데
이 세상 아이들은 본래 해맑은데
너희들의 맑은 눈빛을 잃어 버린 세상은 어둡기만 하구나.
이 세상 고통받는 어린 꽃들아.
너희들의 향기는 아무리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의 향기는 어른들의 탐욕보다 높고 큰 것이니.
오늘의 배고픈 울음이 더이상 슬픔이 아니게
오늘의 허허로운 잠자리가 더이상 가난이 아니게
이 세상 어른들은 더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아니게
너희들의 향기가 더욱 높고 커야 하리.
너희들의 향기 이 세상을 온통 뒤덮어야 하리. 유니세프 보살님들의 손에서 부끄러운 어른들의 손에서 어두운 탐욕의 싸움터에서 너희들의 향기 큰 꽃으로 피어나야 하리.

수 안 (스님·선화가)

이 그림은 수안스님이 유니세프 카드로 내놓은 선화 2점 중의 하나다.

주부신행담

무 상 ㊦



결혼한지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나는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일심으로 아이갖기에 노력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좋다는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면서 정기적인 검진과 보신을 했다. 인연따라 자어지는 아이를 기다리는 초조함이란 드러내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집착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의사의 충고는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날 친정어머니께서 한글 영인본 〈지장경〉을 주시면서 "너는 기도와 하심이 부족한 것 같으니 열심히 지장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시간나면 읽어야지 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장경을 읽기위해 시간을 내야한다"는 말씀과 함께.

나는 큰스님 눈물도 나고 가슴도 답답해졌다. 그리고 열심히 독경했다. 하루 두시간은 꼭 독경에 시간을 들였다. 낮에 일이 있어서 혹은 게으름 피느라 독경을 못한 날에는 밤에 화장실에서까지 읽었다.

또한 효의 도량 용주사에서의 기도와 표충사에서의 1080배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흘렸던 눈물이 뺨에 뜨겁게 느껴졌던 그 날들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4번째 인공수정으로 아기가 생겼으나
행복은 불과 몇개월 "요즘은 지장경 안 읽나"
유언처럼 남긴 남편의 말을 떠 올리며
나는 오늘도 무상의 도리를 배운다

외년 10월. 네번째의 인공수정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부처님의 가피와 의사선생님의 노력 주위분들의 마음모아 기울여 주신 정성에 우리 아기가 생길 수 있었다. 정말 9개월이 걸었다. 아기를 기다려온 5년 보다도 생명체의 느낌을 주면서 출산을 예정한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면서도 길게만 느껴졌다.

아기가 생기고 집안은 또다른 활력을 찾았다. 안정과 행복이라는 정서를 맛보았던 것도 그 즈음이다.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불과 몇개월. 내가 소멸시켜야 할 더 두터운 업이 있었다. 93년 겨울로 들어설 때다. 우리 아기가 '집안이 비좁아라' 며 뛰어다닐 때였다. 그때 남편은 본인이 적극 소망해왔던 사업을 아버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려고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 취직했다.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일에 의욕을 보였고 그 직장의 상황으로 거의 새벽에 귀가했다.

바로 그해 연말 남편은 적은양의 하혈을 했다. 발견당시도 경소 치질 기운이 있던 사람이라 업무를 놓추어야겠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과 삼일만에 하혈이 심해져 큰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병명은 직장암 2기. 젊기 때문에 급속히 확장될 우려가 크지만 일단 암부위를 절단하고 비닐 배설주머니를 차도록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사의 판단이었다.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바로 내게 닥친 내일이었다. 간호사 친구와 도련님이 애를 써서 서울대병원에 우선순위로 수술일정을 잡았다. 물론 남편은 자기병명을 몰랐다. 아이는 동서에게 맡겼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나는 남편의 수술시간을 기다리는 그와 나만의 우리집이 너무 넓고 무서웠다. 어쨌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부모님댁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영문도 모르는 그 사람은 그토록 좋아하는 아버님과 산다는 것에 대찬성이었다.

뱃속에 비닐주머니를 차고 소식을 하면서도 낙천적인 그는 자기병을 그저 단순한 직장염정도로 받아들였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부모 형제만 빼고 친척에게 조차도 병명은 비밀이었다. 비관과 원망, 암담함과 댓없음, 두려움등 복잡하고 착잡한 심경속에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간호했다. 입원실을 변갈아 지켜주던 동서는 매일 교회사람들과 저녁면회시간 때마다 왜유기도를 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집전하는 청성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든 어떤 함이든 내남권을 구해달라고 마구 울부짖었다.

수술결과가 처음보다 좋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의사 권유로 퇴원했다. 집에서 그는 임종 3개월전까지 내가 단 1시간의 잠도 잘수 없을 정도로 불평하며 호소도 했다. '정을 떼려나보다' 싶었고 결코 죽어서는 안된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질렀다.

그때 그사람이 불쑥 물었다. "요즘은 〈지장경〉은 안 읽나?"

광소 내 신앙에 별 관심을 보여오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때 나는 그동안 그를 위해 현상만 쫓았고 내 남편 명을 구하려는 물질적 욕심만 부렸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 그 사람을 진정 살릴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안돼 온몸이 차디차진 남편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지다가 영영 저 세상으로 떠났다. 아버님께는 "병 낳으면 효도부터 살 할께요"라는 평소 그답지 않은 말씀도 드렸단다. 마치 유언처럼 그가 내게 한 말로 나는 지금 더 가까이 부처님께 가있다. 부처님이 삶다간 거룩한 그 길을 찾고있다.

삶이 나를 지치게 할지라도 이제는 생사인연의 무상도리를 알기에 더욱 열심히 불도를 찾을 것이다.

이 두 자 (불암사 신도)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⑲

♦ 'O Samana, both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I eat ; thou also, O Samana, shouldst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thou shouldst eat.'

'I also O Brahmana, both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I eat,' so said Bhagavat.

'Yet we do not see the yoke, or the plough, or the ploughshare, or the goad, or the oxen of the venerable Gotama.'

And then the venerable Gotama spoke in this way :

'I also, O Brahmana, both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I eat,' so said Bhagavat.

Then the Brahmana Kasbhara-dvaga addressed Bhagavat in a stanza :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 그대도 우리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려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어라"

스승이 대답했다. "바라드바자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

바라드바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멍에도, 쟁기도, 소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라드바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ou 당신은 (you의 고어).
'sown (sow의 과거분사형) (→에 씨를) 뿌리다.
'goad (가축의) 몰이막대.
'ploughshare 보습(쟁기날).
'penance 참회, 속죄, 고행.

한영우 기지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프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 속의 불교 ㊷

올가미에 걸린 산토끼가 되기 싫거든



생 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끝이 있다. 태어난 것은 죽고 세운 것은 무너진다. 이 세상, 아니 우주 어느 한 곳에서도 늘 그러한 것은 없다. 우주까지도 팽창과 수축, 탄생과 괴멸의 과정을 밟는다.

늘 그러하지 않은 까닭에 일체는 고(苦)이다. 언제나 싫고 싱그러울 수만은 없으니 고이며, 늘 풍족할 수 없으니 고이다.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으니 고이다.

고는 삶 그 자체와 딱 달라붙어 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끈덕지게 거부한다. 내게 있어서만은 상주(常住)요 불멸(不滅)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늘 건강하기를, 늘 소유하기를, 늘 사랑하기를, 늘 즐겁기를 원한다.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칠 때가 있다는 사실에서 자기만은 예외이기를 희망한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시냇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 간다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갈 애(渴愛)라고 한다. 지독한, 아주 끈덕진 목마름이다.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언제나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내 곁에 늘 함께 하기를 목마르게 애원한다. 불가능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고는 비례적으로 커진다. 삶과 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끈덕진 목마름에 굴복 당하면 마침내 그 사람은 올가미에 걸린 짐승 꼴이 되고 만다. 발버둥치면 칠수록 올가미가 조여들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끝내는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부 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힌 나무라도 그 뿌리가 성하고 튼튼하면 다시 싹을 내듯이 욕심을 부셔 없애지 않으면 자꾸자꾸 고통이 일어나리라 하셨다.

사람의 욕망은 삼넝쿨보다 빨리 자라고 질기기도 그와 같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갈애를 극복하면,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고(苦)는 연잎 위의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이 그렇게 멀어져 나간다.'

생 겨남 그 자체는 고이다. 상주불멸하는 것은 없으므로 그것이 바로 고이다. 그러나 고를 면하는 길이 있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이 고를 벗쳐버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침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 만사에 늘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것만이 갈애로부터의 해방, 고의 떨어져 나감을 가능케 한다.

흐 르는 시냇물을 영원히 막아 둘 수는 없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내게 감아 매 둘 수 없다. 감아 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신세는 올가미에 목이 걸린 산토끼와 같게 된다.

흐르게 내버려 두라, 어차피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늘 그러하지 않은 까닭에 일체는 고이지만 늘 그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고는 고가 아니게 된다.

협찬 : 한용수 · 남상규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